今週一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실로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낫도다 오직 자기를 다루어 이겨라

〈法句經 술천품 104절〉

東大新聞

발행인 민병천
편집인 겸 차수련
주간부 간이 만봉
편집국장 안재로
편집장 박수로

펴낸곳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126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 5월26일 (수요일) 【 1 】

학내 구성원 재단 자정 촉구

총학운영위—비상학생총회 통한 대중 투쟁 전개 결의

교수회·직원노조·석림회등 대책위 꾸리고 수습방안마련 부심

학생들의 본관점거농성이 한달가까이 진행되고 총학생회 사정특위를 통해 몇몇 재단이사들에 대한 비리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학내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4시 대학원장실에서 열린 총장, 부총장등 학교당국 관계자와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면담에서는 그동안 총학생회가 1차 요구안으로 제시한 6개항에 대해 학교측의 답변이 진행됐다.

학교측은 행정대학원 강모교수의 인사문제에 대해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인사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음을 시인했으며 학생들의 요구대로 경주캠퍼스로의 원상복귀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대 총장재직시 부정입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상태에서 본교 휴직상태로 유지돼온 김모교수문제는 김교수가 지난 3월에 제출한 휴직연장원을 학교에서 반려한 상태라고 말하며 '문제있는 교수를 학교에 영입치 않겠다'는 학교측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등록금문제 합의당시 학교측이 약속했던 재단전입금 10억추가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교육부지원, 개인기부등으로 12억을 추가전입했다"고 밝혔으나 학생들의 '재단으로부터 전입금이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로 마찰을 빚었다.

올해 등록금 합의문 복지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학교측은 "재단이사회의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아 비용결제가 되지 못해 진행하지 못할 뿐이며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동국학술문화관 신축시 미술학과 가건물설치는 예산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미술학과 학생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총학생회측은 이날 면담에 관해 학교당국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답변이나 대안제시는 회피한 채 학생들을 무마하려고만 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재단혁신 투쟁에 있어 학교당국으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은 기대키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더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 국교4)는 지난 19일 '부정비리재단이사처단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기관지를 통해 뇌물수수등의 비리혐의사실을 증거물과 함께 공개된 일부 재단이사, 재단사무처장에의 소위 '재단비리5적'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 6백여명은 부총장실 점거와 점거중인 이사장실, 총장실의 집기를 끌어냈다. 이같이 학내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학교당국은총장담화문 발표를 통해 총학생회가 제기한 1차요구안의 해결을 약속하고 조속히 점거농성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학원비리 처결을 위한 개혁사정위의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무위원들은 '학생들에게 알림'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공공사무실 점거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학생회측은 "총장담화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재단혁신과 비리척결등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한 채 사태수습만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5일 비상학대표회의 상정과 오는 6월 8일 비상학생총회를 통해 사정학생특별위원회에서 폭로한 몇몇 재단이사와 학교 고위당국자들의 퇴진투쟁을 준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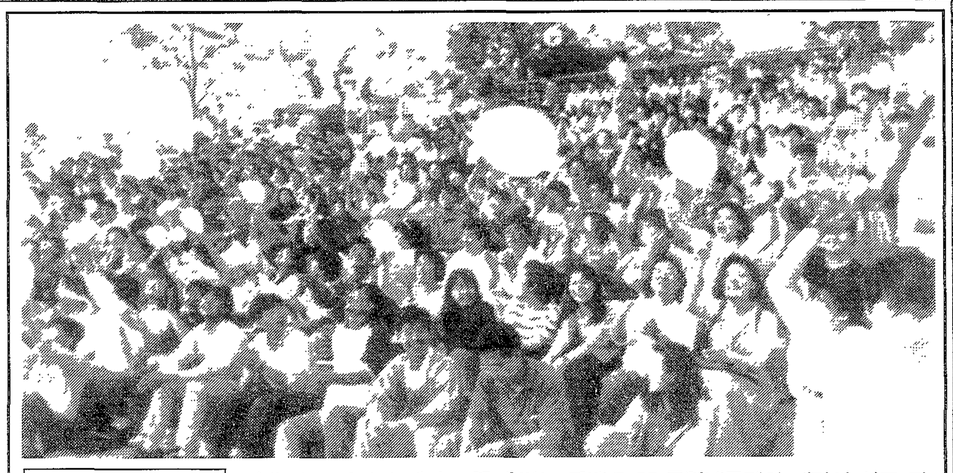
이에 최총학생회장은 "이제 투쟁은 학교발전을 저해해온 근본적인 이유인 재단에 초점을 맞춘 전면적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학내구성원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학생회의 재단혁신투쟁이 계속되고 학내사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교수회, 직원노조등도 대책회의를 여는등 학내문제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는 지난 24일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교수총회를 개최 하기로 했다.

직원노조(위원장=장운 관재과)는 지난 24일 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서채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교 스님학생들의 모임인 석림회도 대책위를 꾸리고 지난 24일 배포된 '재단이사님께 드리는 글'등을 통해 학생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몇 재단이사및 재단사무처장의 비리사실의 진위를 묻고 공감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이 현 학내사태와 관련해 재단혁신투쟁을 벌이는 학생회와 여러 학내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사태해결을 위한 재단측 입장정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취재부>



대동제 개막 '내 사는 동악이 제일로 좋아'라는 주제로 93 목멱대동제의 개막이 선포 되는 순간 만해광장에 모인 학생들이 일제히 풍선을 날리고 있다.
<관련기사 11면·이석종 기자>

교무처 "강의계획서 배포 수강정정 불가"

"학생들 검증이후 논의 돼야" 교과위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는 오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하는 2학기 수강신청시에 강의계획서를 함께 배포한다.

그간 수강신청 정정 불가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수강근거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준비된 강의계획서는 각 과별로 7~8권씩 배포되며 이에따라 수강신청 정정이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중앙교과위원장 남철우(농경4)군은 "강의계획서의 충실성을 학생들에게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강정정정폐지 방침을 세워놓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질적 수강신청근거로 강의계획서가 이용되기 위해서는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충분한 공유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의계획서는 강좌별로 총3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강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27일경 배포될 예정이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서울 초청강연회 경주 법요식

정각원(원장=한보광·선학)은 불교도 주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불교대학생회(회장=김창모·불교4)와 함께 송월주스님 초청 강연회를 지난 19일 정각원에서 개최했다.

교수와 직원, 학생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어떻게 하면 세간인을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 것인가'란 주제로 2시간동안 열렸다.

경주캠퍼스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교내장엄등 점등식, 제등행렬, 봉축법요식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20일 총학생회 종교부(부장=최광식·철학4)에서는 교내 일원및 녹야원에서 교내장엄등 점등식을 가졌으며 불교도연합회(회장=이종수·철학4)의 제등행렬이 오늘(26일) 본교대운동장을 출발 팔우정 로타리를 끝으로 학생및 교수·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정각원(원장=최법혜·불교학)에서는 오는 28일 '봉축법요식'을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갖는다

제121회 재단이사회 열려

올해 예산안 심의·확정

제121회 재단이사회 지난 25일 타워호텔에서 열려 올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정족수가 되지않아 오후3시가 돼서야 개회된 이번 이사회는 예산안 심의중 한두가지 사하이의 지적을 제외하고 별무리없이 의결됐으며 현 학내사태에 관한 간담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 도서대출 전산화 실시

도서관(관장=홍영백)은 지난 8일부터 교수·직원 도서 대출에 대한 새신분증 사용을 시작했다.

이미 한달전에 발급을 끝낸 새신분증은 종전보다 사진이 커져 인식이 쉬워졌으며, 무엇보다 (Dial up)모뎀전용 전화선 5회선을 확보하고 주 컴퓨터(CYBER)와 전용선으로 직접 연결된 컴퓨터에서만 사용할수 있던 세계대학 학술전산망(BITNET)의 사용범위를 확대 시켰다.

이로써 각 학과장실이나 교학과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세계대학 학술전산망을 어느곳에서라도 모뎀이 설치된 컴퓨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된다.

오는 6월1일 개통되는 다이알업 모뎀용 전화번호는 260-3731~5번 까지이며 신규등록자의 경우 전자계산소에 등록한후 사용자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전자계산소 학술전산망 확대

본교 전자계산소(소장=이금석·컴퓨터공학)는 다이알 업

재직 동문회 법어휘호전 개최

'한국고승 법어휘호전'이 오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대한불교진흥원 2층 전시장(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본교재직 동문회(회장=이병동·농업경제학)주최로 열린다.

이번 휘호전에는 원담스님(예산 수덕사)의 심화(心華)등 25점이 전시되며 이중 일부는 본교에 영구보존되며 일부는 판매될 예정이다.

전창원 교수 무역실무운송론 발간

무역실무분야의 권위자로 대내·외에 알려진 전창원(무역학·대학원장)교수가 무역운송 전반에 걸친 설명을 담은 '무역운송실무(일신사·1만8천원)'라는 서적을 펴냈다.

국내 최초로 무역 실무담당자의 입장 특히 수출·입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실무담당자의 입장에서 서술돼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이책에 관해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기술혁신, 원가절감등을 위해 선행돼야 할 물류(物流)의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리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직업이라든가 교양, 사회적 지위까지도 얼굴에 다 표현된다.

불량배는 결코 성자(聖者)의 얼굴을 가질 수 없다. 주머니가 비면 궁색해보이고 걱정이 많으면 얼굴에 수심(愁心)이 가득하다. 사람은 사귀어보아야 안다지만 얼굴만 보아도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얼굴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므로 가꾼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즘은 성형(成形)이니 정형(整形)이니 해서 얼굴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바탕이랄까 풍기는 분위기는 어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얼굴'이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판타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진실하긴 했지만 워낙 바보여서 수행자가 된지 몇해가 지났는데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판타카는 이를 비관해 환속을 결심했다. 이를 알게된 부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특별한 수행방법을 일러주었다. 그 방법이란 매일같이 기원 정사의 마당을 쓸고 외출에서 돌아오는 수행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이 일을 묵묵히 했다. 그러는 동안 판타카는 절마당을 쓸듯 번뇌를 쓸어내고 발을 닦아주듯 마음의 때를 완전히 닦아낼 수 있었다. 부처님은 그가 깨달음을 성취한 것을 알고 이를 크게 칭찬했다.

어느날 판타카는 비구니들이 있는 곳으로 부처님을 대신해 설법을 하러 가게 되었다. 비구니들은 바보 판타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보가 어떻게 설법을 할 수 있겠느냐'며 수근거렸다. 그녀들은 판타카스님이 오면 실컷 비웃어주자고 약속했다. 마침내 판타카가 설법을 하러 비구니 처소로 왔다. 그러나 그녀들은 어찌된 일인지 웃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어떤 존자(尊者)가 왔을 때보다 더 깊게 고개가 숙여졌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판타카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비록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평화로움과 겸손함이 표정속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요즘 우리는 한시대를 주무르던 사람들이 초췌한 몰골로 끌려가는 얼굴들을 자주 본다. 뻔뻔스러움과 부도덕을 합성(合成)해 놓은 듯한 그 얼굴을 보면 비웃음에 앞서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정직하고 진실된 얼굴, 슬기롭고 온화한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수술하고 화장했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얼굴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얼굴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모두가 마음의 거울에 비춰볼 일이다.

洪思誠

얼굴과 인격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5 제2창업5주년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 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세계사의 주역'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기술의 힘으로 세계와 겨루는

SAMSUNG 삼성전자

새내기의 봄농활 참가기

농민들과 어우러진 함성 '지화자'

헐레벌떡 중문 고갯길을 오르는 내 머리속엔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날따라 늦잠을 잔 나는 버스를 겨우 잡아 탈 수 있었다.

우선 선배님과 동기들의 주먹세례를 한 차례 받고 난 후 함께 탄 법대, 경상대 학우들과 간단한 오락을 하고 봄 농활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4시간을 보내고 나니 목적지인 충청북도 제천군에 도착하였다.

비가 오고있어서 첫째날 농활은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영으로 막을 내렸다. 일을 하러 왔는데 편하게 놀고 있는 것 같아 비가 내일까지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뒤척뒤척하다가 기상-! 소리에 눈을 뜨니 새벽 5시30분. 얼른 창밖을 보았더니 다행이 비는 개어 있었다. 우리는 간단한 구보로 아침 운동을 마치고 호별 방문에 나섰다. 호별 방문은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농촌의 문제점을 함께 얘기하며, 우리가 할 일거리를 구할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보았다.

오후에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서 농작물에 비닐을 씌우고 수박모종을 심고 있는데, "봄볕에 타면 님도 못알아 본대요"하시며 큰 수건을 내 머리에 둘러 주시던 아주머니의 투박한 손이, 그 따스했던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세째날은 모두들 지쳐 이불속에서 꼼지락 거리고 있는데 "고작 어제 몇시간 일했다고 이모양들이야? 농부 아저씨들은 이런 일들 생활화 되어 있으신데도 벌써 일어나셔서 늬들 기다리고 계셔"라는 작업 반장님의 말씀에 모두들 발딱 일어나 일터로 향했다. 생각보다 볕이 뜨거워 힘이 들긴 했지만 동기들의 등허리가 벌겋게 익어가는걸 보며, 괄죽땀을 흘리며 호미질하는 아저씨를 보면서 여기서 쓰러지면 안되지 하며 내자신을 채찍질 했다. 밤이 되어 지친 몸으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엔 "수고 많았다"하는 동기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 주었다.

내일 가면 아쉬워서 어쩌냐며 동네 어르신들이 준비해오신 막걸리와 소주는 농활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삼아 금방 동이 나버렸고 달아오른 얼굴을 잠시 식히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이 빛나던 별과,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목청 돋궈 울어대던 개구리소리가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를 생각 나게했다.

마지막 날, 오전작업뿐이라 쉬 일을 끝내고 나서 짐을 챙겨 나오니, 밖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불고기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

"한 일도 없이 대접만 많이 받고 가는것 같아요"

"뭘 그만하면 많이 도왔지, 뭘 더 어떻게 도와?"

"저희가 너무 미숙해서 오히려 농사망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냐, 학생들 고생 너무 많았어. 자자 술한잔 들자구"

모두들 잔을 높이 올렸다.

농민 아저씨와 우리들의 한데 어울린 외침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다.

"지화자—//"

신 정 화
<사범대 지리교육과>

열린공간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고용불안 외면할수 없는 문제

노동자는 기계나 설비 등 생산에 필요한 것을 어느 것 하나 소유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몸뚱아리를 자본가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러한 노동자가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함하면 1천2백만명에 이르며 가족까지 합치면 2천5백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2천5백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몽뚱아리를 팔 곳 마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89년에서 90년까지 4천8백3십6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아 16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91년에는 이 삼년치를 초과하는 6천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였고, 92년에는 1만5백개의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였다. 92년 들어 제조업 노동자가 8만명이 주는 등 임시고용직, 임용노동자를 포함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5백8십만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고용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을때, 국가에서는 실직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응당한 의무이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은 오히려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성 해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업무지침'이란 노동부 지침을 통해 기업의 대책없는 정리나 해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폭넓게 해석하여 노동자를 집단 해고시킬 수 있게 된다.

둘째, '시간제 근로'라는 광범위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아르바이트식 근로활동으로 정규 직원이 아닌 사람을 임시로 고용하여 작업을 해도 불법이 아닌 근로제도이다. 이 제도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도이다.

셋째, 정부의 국제화 추진 정책으로 기업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외국노동자의 고용은 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가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등의 3D 현상 운운하며 애써 고용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고용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2천5백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고용문제는 김영삼정부가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결코 외면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제나 고용보장제도등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 세 영
<총학생회 연대사업부장>

강의실 사용 소강당 수업필요한 시설 갖춰야

온방골에서 강의실로 이용되는 몇 안되는 곳중 하나로 원효관 소강당이 있다.

교양과목의 경우 수강생이 많을 경우 4백명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모여 이를 수용할 마땅한 강의실이 없는 터라 어쩔수 없이 소강당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불편함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처음부터 강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명등은 실내 형광등과는 달리 매우 어둡다. 낮시간이지만 창문이 거의 없어 불을 켜야 하는데 칠판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아 강의를 듣기가 힘들다.

또 칠판의 경우 낡고 이동식 칠판이라 여기에 글씨를 쓸 경우 어두운 조명과 함께 조그마한 글씨를 보는 것은 일부 눈이 좋은 학생들이 아니면 불편을 겪는다.

강의실 부족으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소강당이 이제 학기마다 강의실로 이용되는 실태다.

적당한 강의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다면 최소한 강의하기에 불편을 겪지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춰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경우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기위해 애써 소강당까지 와서 수업을 듣는데 필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

조금만 신경쓰면 이를 사용하는 학생이나 강의하시는 교수님 모두의 불편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최소한의 시설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강 정 희
<인문대 국문과>

쓰레기 분리수거 부진 무관심한 학생 안타까와

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수거'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학교도 생활운동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해 현재 각 건물마다 분리수거통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캔류, 종이류, 플라스틱류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별로 잘 구별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재생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필요의 인식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본다. 자원이 풍부해 남아도는 실태도 아니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쓰레기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해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회관 식당등 분리 수거통에는 종이류를 넣어야 할 곳에 플라스틱류들이 들어 있는등 곳곳에서 학우들의 무관심을 볼 수 있었다.

여러가지 교양강의 중에서 환경에 관한 경각심을 느끼게끔 하는 강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강생 또한 엄청난 숫자가 신청을 해서 듣고 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배우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그저 지식 수준에서만 인식하고 진작 실천의 문제에 와서는 외면해 버리는 학우들에게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생활화되어 갈 때만이 동국의 참다운 주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박 희 성
<상경대 회계학과>

조대만평

이 영 호
<예술대 미술학과>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대학신문 탄압기사 눈길끌어

부정부패 척결등 학원자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노력을 충실히 보여준 지난호 동대신문(5월12일자)은 학내 전반적인 민주화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민족동국자주중흥의 기치로 학교발전의 의지를 나타낸 학생들의 모습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한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7면의 대학신문탄압 관련기사가 더욱 눈에 띄었다. 학원비리 고발기사, 교육비리 관련기사에 대한 학교당국의 기사삭제 요구, 제작·발행중지 요구로 다수의 대학신문이 그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학신문의 그 물적토대는 학생 등록금에 대부분 의존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역할이 대학신문의 소명인 것이다.

예를들어 한성대의 경우, 교수임용에 대한 학교측의 교육부 허위보고 사실을 학보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제작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학원의 모습은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부패해지고 민주적 요소는 더욱더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문민대통령'은 시간이 날때마다 언론을 향해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는 이를 언론의 자주성을 제거하려는 '탄압'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대학언론에 입김을 불어넣는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에대해 '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항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는 학자투의 대상과 동일한 그 실체는 학우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상 현
<문과대 일문과·본사모니터>

대자보분석

교내 비리인사 폭로

재단 관계자 5명 공개 비리척결 자정요구 거세질듯

제 25대 총학생회가 학원내의 비리인사 척결을 내세우며 본관 점거에 들어간지도 한달 가까이 되어간다.

현재 교내에는 비리인사 5인에 대한 비리 폭로대자보가 곳곳에 붙어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자보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재단이사)의 비리사실등 재단 이사 3명의 비리사실과 재단 사무처장, 전산원장등의 비리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이 대자보가 폭로한 S이사에 대한 비리 사실로는 △비구승이 아닌 계율을 위반한 은처승인점 △설악산 신흥사 주지 임명과정시 3억원 수수 △총무원장 비서실 여직원 오모씨의 성추행 고소 등이다.

또 C이사와 P이사도 90년 당시 모교수에게 총장을 시켜주겠다며 각각 5천5백만원과 4천5백만원씩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재단 사무처장에 대해서 이 대자보는 직원으로의 직책을 망각하고 인사권, 학교운영등에 간섭, 재단전횡의 주도적 역할을 다해왔다"고 밝히고 "교육부, 세무서등에 각종로비자금을 유출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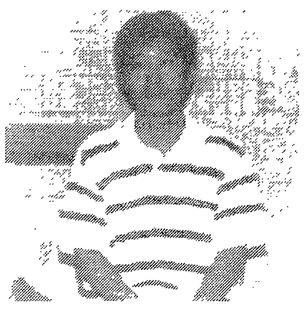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자계산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89년 당시 부정입학의 댓가로 받은 기부금을 개인이 착복했을 가능성과 전문입시 부정 조직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사정특위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분석을 통해 2차 폭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교내에서 이같은 비리폭로와 자정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 매체부>

동/문/칼/럼

개혁의 주인은 느긋할 수 없다



며칠 전, 예전에 자주 갔던 식당에 오랫만에 들렀더니 아주머니께서 반가와하시며 "복직 됐어요?"하셨다. 그러면서 "신문이고 TV고 모두 복직 됐다던데…"라 덧붙이셨다.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지만 사실 신문을 꼼꼼이 읽지 않는 아주머니를 탓할 일은 아닐 것이다.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대다수가 "언제쯤 복직될 것 같애?" 하는 것이 인사가 될만큼 언론에선 골 복직될 것처럼 보도했고 문민시대의 개혁을 외쳤으니 대강의 제목만 읽는 보통사람들은 딱이 언제 복직되었다는 것은 못 보았지만 복직이 되었으리라 짐작할 만도 하다.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온 언론을 장식하며 붙어닥친, 사정 혹은 이른바 개혁이라는 바람을 보는 3개월은 한마디로 혼란이었다. 70%가 넘는다는 지지율을 들먹이며 어쨌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는 단순한 논리를 거부하기도 힘들었고 진정한 개혁이라면·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새 정권이 들어서던 때가 자꾸 생각났다. 그때도 언론은 온통 사정의 매운 칼날과 개혁의 바람을 찬양했었다. 물론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개혁이라는 얘기도 항상 있었다. 그러나 그때 뿐, 몇달만 지나면 국민 각자의 의식이 문제라며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바뀌었다가 흐지부지 되었었다.

내가 있는 교육계에도 입시비리를 필두로 몇몇 부정이 밝혀지자 이제까지는 아무도 교육의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따라서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듯 법석을 떨었지만 어떻게 개선했다는 말도 없이 다시 조용하다. 수년 전부터 교육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많은 교사 교수들이 해직되어 가면서도 교육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했을 때, 교육문제는 조용히 처리되어야 교육적이라며 쉬쉬했고, 급기야 잘못된 교육은 고쳐져야 한다며 전교조를 결성했을 때는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등 참교육은 '빨갱이' 교육이념이라는 등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하며 수많은 교사들을 해직시키는 것으로 덮어버렸었다. 지금도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교육비리의 해결책은 없이 본질적인 문제가 교사의 촌지나 교사의 근무기강 해이, 혹은 교사의 자질부족에 있는 것처럼 유도해 나가고, 이것을 빌미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교사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며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과거의 정권이 해왔던 것과 구별을 할 수가 없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해직교사 문제도 그렇다. 해직교사들은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두고 볼 수없어 현 대통령도 인정한 전교조를 선택했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부라면, 잘못의 희생자를 즉시 무조건 복직시켜 놓고 처음부터 조근조근 교육문제를 이야기해야 옳다. 그런데 정권은 복직방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조용히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 또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2년동안 계속 줄인 교사 정원을 적정규모로만 확보하면, 문제될 것도 없는 예비교사 적체문제를 부각시켜 은근히 후배들과의 이간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구경꾼은 느긋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의 주인, 잘못된 정책에 피해를 본 사람은 느긋할 수가 없다. 잘못된 교육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는 느긋 할 수가 없다. 느긋함은 개혁의 대상들에게 반발할 여유를 주는 것 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

차 용 택
<성동고 해직교사·사범대 국교 84졸>

동악광장

목멱골

◇ 축하합니다

■ 화창한 5월의 끝에서 태어난 영림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2식공 친구들이

■ 호일의 결혼을 축하하며 깨소금맛 나는 신혼을 기원합니다.

—法4일동

■ 사회학과 '88 기호와 종혁이가 21,22일 생일이였드랍니다. 두주먹 불끈 쥐고 탈모태, 입세상했을땐 그만한 의미가 있을겁니다. 사회학과 모든 학우들이 축하드립니다.

■ 5월28일은요 제1기 한총련 출범식과 부처님 탄신과 탈반의 살림꾼 문자(92)의 탄생이 겹쳤어요. 위세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탈89

■ 5월22일은 농경과 희재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래요. 축하해 희재야

—光

■ 우리 이쁜이 유경(국민윤리1)아! 생일 정말로 축하한다.

—호우20기일동

■ 탈반공연 무사히 또는 탈(?)없이 끝마친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총련 출범식때 뵙길 바랍니다.

—탈선배

■ 5월29일이 농업경제과 심지영양이 태어난 날입니다.

■ 국교93정숙이가 31일 생일이래요!! 축하려!!

—93 학우

■ 합창단, 5월30일 대학연합합창제 참가9고대 인촌기념관)를 축하합니다.

—훈.언.호

◇ 수고하셨어요

■ 백상응원단 후배들에게. 그 흔한 "축제의 낭만" 한번 느껴보지도 못하며 제12회 전국대학응원대제전을 준비한 마·이단장과 구여운 16·17기 후배들아! 고마워!

—12기 선배 현

■ 말많고 한많은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연습하시느라 선후배, 동기들 모두 고생 많으셨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생활하며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민속극연구회 92총무

■ 체육대회 치르시느라 수고하신 은석이형 감사합니다. 영원하라 토목이여

—강철토목

■ 인간존중 참세상 건설을 위한 여의도제등행렬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불하세요.

—불교학생회 회장

◇ 열심히 합시다

미정아, 힘들더라도 열심히 살아야돼.

—국교과93 L.C.

한총련산하 남총련 학우들 왔다갑니다. 오월문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동악인의 지지바랍니다. 동악인의 학자투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성하느라 고생이 많죠? 학원자주의 그날을 그리며 동국발전의 한길로 열심히 투쟁! 합시다.

—탈

◇ 알립니다

■ 5월30일에 경동동문체육대회 합니다. 꼭 참석하세요.

—무적44기

◇ 그리고 …

■ 4학년 선배님들 멋진 졸업여행 되시길.

—국문과 후배일동

■ 수교과 93M.T를 갔다왔어요. 아주 재미있었데요.

—정=0

■ 지리교육과 영일이의 군입대를 무지막지하게 슬퍼합니다. 잘 다녀와라.

—92일동

■ 이번이 영화공동체 디딤돌에서 비디오작업을 합니다. 모든 성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태식

■ 축제기간동안 축제사진전을 학생회관 3층 상설전시장에서 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려요.

—동그라미 사진연구회

온방골

◇ 축하합니다

■ 우리의 구엄등이 김정호군! 비록 지나긴 했지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꼭 전해줘요.

—생물학과 박카스일동

■ 강철사랑의 일읍이 생일이 5월26일이예요. 축하한다고 꼬옥 전해주세요.

—哲 Hiw

■ 은선아! 너의 5월31일 생일을 축하한다. 열심히 사는 지금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 올 한해도 멋진 낭만을 펼치렴.

—11기 TIME 친구들이

■ 재택선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S·G는 영원하다.

—공주일동

■ 28일 성엽이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세요.

—관경과 92학번 Cupid

■ 28일은 관경과의 희망인 이형수형의 생일입니다. 관경학우여러분, 그날은 모두 연등들고 '형수님 오신 날' 기념합시다.

—인어공주

■ 27일 영만이와 성훈이의 생일을 축하한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생활하기 바란다.

—호섭

■ 6월1일은 수영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축하의 말 한마디 건네면서 지냅시다.

—J

■ 광고동아리 AIDMA의 출발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며…

—철

◇ 수고하셨어요

■ 바라밀 가족여러분! 지난 축제 및 23일 공연 수고 많았습니다. 12·13기들 무사히 공연 마쳐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바라밀 H·S(녹두)

■ 국사학과 노래패 「하나·됨」공연이 성황리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 알립니다

■ 5월27일 쿠사(KUSA) 창립제가 있습니다. 5시 옥야실에서요. 많이 보러 오세요.

■ 5월28일 동국 L·E·O의 창립제인 "현장의 밤"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Dreamer

■ Youth-J.C인이여! 오는 28~29일동안 대구대학교에서 영남지구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요번에는 꼭 우승기 가져옵시다.

—한물 간 찍이가

■ 6월1일~4일동안 포항同志동문 T셔츠 배부합니다.

—총무

■ 6월2일 대서울 영동·영동여고 동문회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대리

◇ 열심히 합시다

■ 5월30일에 있을 산업안전기사 1급시험에 4학년 학우 전원이 좋은 결과 있기를… 전원 힘내세요.

—Duck

■ 부총장배 테니스 대회에서 규환이가 우승 트로피 안은 모습을 기대하며 DUTC 화이팅! 최규환 화이팅!

—From 상덕

■ 93국문과 남문희, 김명진, 진영권 and 재형선배님이 하들길공연에서 "변해가네"를 불러요. 잘 불러라!

—수희

■ 우리 중어중문학과 2학년 모두 서로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서 단합하자.

—라

■ 93국사학과 수희야 힘내자. 열심히 살자.

—사랑하는 친구 M·H

◇ 그리고 …

■ 5월20일 친구 희란이가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부디 다음 생애에서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이 희란이 몫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모두 명복을 빕시다.

—수학교육과 일동

■ 효순이가 무척 건강해져서 기쁩니다. 빨리 퇴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은영

■ 제1차 아마추어 무선기사 시험에 응시한 서울 및 경주캠퍼스의 아마추어 무선국의 회원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5기 상엽이가

틀베니 장터

◇ 팝니다

■ 대림텍스92년형 팝니다. 가격 절충. T:771-4982(밤7시이후)

—경주 중문4년 김경록

■ 삐삐(파나소닉) 팝니다. 가격은 10만원에서 조정가능.

—경주 행정2년 학보함

◇ 삽니다

■ 오토바이(125cc) 삽니다. 가격은 40만원에서 절충.

—T:0561)771-1607 저녁10시이후 0561)770-2597 낮 12시~13시사이

■ 14인치 칼라TV 3만원대로 삽니다. 냉장고도 삽니다(가격절충).

—경주 불교2년 우편함

■ 도트 프린터기 삽니다.

—T:0561)749-1438

■ 중고냉장고 삽니다. 용량120~80 l 사이. 가격은 4~5만원선.

—경주 경영2년 이상철

■ VTR 삽니다.

—T:977-9561

■ 286 AT컴퓨터 삽니다.

—T:497-2570

◇ 아르바이트

■ 컴퓨터기초 과외 구합니다.

—T:497-2570

■ 사무실에서 통신나가는것 관리할 사람모집.

·기간:AM5시~9시30분

·수당:3십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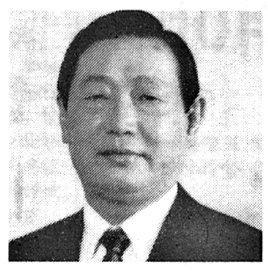
·연락처:연합통신 서울보급소 김정옥

T:766-4887~8

시사논단

김 원 기

민주당 최고위원



역사적 진상규명 선행돼야

광주문제해결 어떻게 해야하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쟁의 주역들과 항쟁의 뜻을 계승하려는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5·18'을 매도하던 논리가 모두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주장을 하던 자들 모두가 역사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그것이 국민적 차원에서 '구국의 민주항쟁'으로 공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5·18에 대한 공식적 평가는 왜곡되어 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은 어둠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항쟁의 진상이 한번도 진실되게 규명된 적이 없고, 그 의미가 역사적, 국가적으로 재조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첫째 원인은 지난 13년간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5월항쟁의 가해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민주항쟁의 가해자 집단인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광주·호남을 고립시키고 진상을 왜곡했으며, 학살주범과 주체세력을 은폐하고 조작했다. 뿐만 아니라 5월항쟁에 반감을 갖도록 국민들을 유도하여 구국운동을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출현은 5·18이후 처음으로 정권담당세력이 5·18의 가해자 집단으로 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5·18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5월 13일 담화는 우리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것으로서, 5·18의 진상규명을 역사에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용서가 되었든, 처벌이 되었든, 명예회복이 되었든 화합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진상규명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이 진정한 문민정권이라면, 진정 우리 민족사의 발전을 위한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5·18의 진상규명을 역사에 맡기자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래에 맡기자는 것이자, 국민에 기반을 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역사에게 맡기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기만, 나아가 용서와 화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분열을 용인하는 것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5월항쟁의 명예회복은 모든 국민들이 그 발단에서 결과까지 그 진상을 앎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말해 명예회복은 진상의 철저한 규명을 통해 5월항쟁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념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평화운동이었고, 이 항쟁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집권자의 지혜에 의해 결코 명예는 회복될 수 없다. 5월항쟁의 명예는 오직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 자체가 국민들의 거울이 될 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회복되고 계승되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5·13 담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광주문제의 명예로운 해결을 통해 진정한 국민화합을 바라는 국민적 요청을 '한풀이 차원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월항쟁의 진상을 왜곡시킴으로써 항쟁주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마찬가지이자,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왜곡시킴으로써 또 다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5월항쟁을 지역적인 문제로 축소시키거나 한풀이의 감정적 차원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5·18문제 해결노력에 대한 규정은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이 진정 5·16, 12·12, 5·17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고, 군사정권의 후계자가 아니라면 먼저 5월항쟁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김영삼 정권이 가슴으로 4·19, 5·18, 6·10의 민주정신을 받든다고 한다면 5월항쟁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찾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정신을 계승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진상규명없는 광주문제 해결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진정한 명예회복은 진상규명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둘째, 국회차원의 광주특위 재구성에 민자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5·13담화'는 통치권 차원의 일방적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적,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하여 법적 뒷받침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김영삼 대통령은 '12·12주도세력'에 의해 감해된 '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와 '5·18민중항쟁의 진압'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2·12사태와 5·17조치가 없었다면 광주의 참상은 발생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청와대는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도 12·12 주도세력과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5·18민중항쟁과의 연관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넷째, 진상규명 그 자체가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광주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범국민진상조사기구'를 만들 것이다.

다섯째,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진상규명소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쟁점사안별로 현장조사, 문서검증, 증언청취, 관련자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쟁점사안별로 현장조사, 문서검증, 증언청취,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실체적 사실규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월항쟁에 뿌리를 둔 우리 민주당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끝까지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제 모든 문제는 권력자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적 동참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국회를 통해, 다른 문제들은 항쟁의 주역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책임자의 처벌문제 등 진상규명을 제외한 나머지 '5·18광주문제 해결 5대원칙'은 진상규명 이후 해결해야 할 제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진상규명'이 5·18광주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고 생각하고 이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설

문제해결의 대화합을 기대한다

지금의 학내사태는 예전의 '소요'와는 사뭇 다르다.

단지 몇몇의 책임자가 나서 수습할 수 있는 문제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당국이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시인했듯이 비민주적 학사행정이 학원내에 존재하고, 진위여부가 가려지지않고 있는 일부 재단관계자들의 비리가 구성원들의 의혹어린 시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한달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장기 점거농성을 우려의 눈초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일이 무마차원에서 해결돼서는 안될 것이다.

좀 더 학교발전의 대의속에 그것을 가로막는 본질적 폐단의 문제에 접근해 가야만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문제를 제기한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교수회, 직원노조, 석림회등 학교 구성원들이 해결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수회는 이미 대의원회를 통해 대책위를 꾸리고 조만간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직원노조도 학원비리문제에 대한 재단의 입장발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석림회는 동국발전을 위한 대안을 재단이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근본적 사태해결을 위한 재단이사회 관계자및 학내구성원들이 모여 지금까지 제기된 혁신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좌담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

이같은 당위에서의 학내구성원들의 움직임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증거물까지 제시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시선을 받는 인사들은 학내 구성원앞에 떳떳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1일 발표된 총장담화나 오늘(26일) 발표된 재단이사장 담화내용은 사태무마를 전제로한 본질회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진정 학내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은 2학기중 동국중흥한마당을 성대히 치르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현 학내문제나 향후 학교발전의 당위는 학원의 모순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거창한 행사 한번 치른다고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정화없는 발전안 선포가 이제 학내 구성원들의 가슴을 들뜨게 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

이는 좀더 모든 동국인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소수의 관계자가 대책위를 꾸리고 한 주체만이 나서서 풀릴 매듭이 아니다.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이제는 사태와 무마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동국인이 하나되어 건설적 대안을 고민할 시기인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덮어둔 화합의 제기는 동국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병의 치유없는 발전안은 현시기 학내사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언제 다시 앓을 지 모를 불치병을 계속 안아야만 할 것이다.

각주체 공동으로 문제해결의 대화합을 이뤄보자. 구성원이 모두모여 학교발전과 지금의 학원부정부패 타개책을 논의하자.

더이상 누구하나 사태해결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국의 발전적 미래는 침묵하는 자와 학원을 개인의 잇권으로 삼으려는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총련 출범의 의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 도약

지난 89년이후 대학사회 뿐만아니라 한국사회운동의 커다란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던 '제3의 정치세력' 전대협의 역사가 찬란했던 6년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한총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의 서곡(序曲)을 알리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전대협의 역사가 한국사회의 산역사의 주역이었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세계변혁운동사의 보기드문 모범적인 학생단체 였음을 감안한다면, '전대협 해소 한총련 출범'이라는 명칭변경 의미이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전대협을 뒤로한 한총련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학생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새삼 요즈음 궁금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전대협이 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89년 임수경 대표의 평양축전 참가이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 청년학생회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사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학우들속에 구국의 강철대오로, 국민들에게는 전대협이란 이름으로 명확히 새겨진 때는 사실 이때부터이다. 이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즉 90년 5·9 반민자당 창당반대 8·15 제1차 범민족대회, 91년 5월 강경대 열사치사정국 제2차 범민족대회, 92년3월 총선 12월 대선등을 통해 맹아적이나마 국민들의 희망으로 서서히 자기단련을 하였다.

이것은 조직발전과도 함께하는 데 1기 3천여명의 초라한 숫자(?)로 시작했던 출범식이 89년 3만, 90년 엄청난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남대에서 5만, 92년 한양대에서 8만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출범식 참가 숫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세계역사상으로도 몇년간에 이렇게 거대조직으로 발전한 대중단체는 보기드문일이었다.

전대협 6년역사가 남긴것은 크게 두가지라 볼 수 있다.

첫번째는 87년이전까지 없었던 전국연대 학생조직을 최초로 합법적으로 건설하여 대중적인 자치조직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전대협이 각계 각층과의 연대사업에서도 모범으로 우뚝서면서 실질적인 재야운동의 구심체 전국연합이라는 단일 조직체 건설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통일운동의 발파공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존의 민권·민주운동을 한차원 높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우리시대의 한국사회의 변혁운동 이념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88년 서울대 김중기 구국선언으로 시작된 남북청년학생 통일회담, 89년 임수경 평양축전 참가 성공 그리고 범민족대회등 해마다 국민들의 가슴속에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의 논의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가지 장을 마련한 것이다. 전대협의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이 본궤도로 올라설수 있도록 한차원 높인것이며 짧지않은 6년의 세월은 국민들이 다양한 민주개혁의식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징검다리가 되었다.

지난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전북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는 한총련 출범을 확정하는 신호탄이었다. 6년역사의 전대협을 올곧게 계승하고 확대된 운동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셈이다.

찬란했던 전대협역사의 계승을 거부(?)하고 한총련 건설을 결의하는데에는 커다랗게 두가지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전대협이라는 명성속에 감추어졌던 한계 즉 학우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완전하게 받아안지 못한 점을 극복하고 백만학도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는 새로운 이념의 선포였고 그리고 이로 나아가기 위한 확대된 민주주의의 조직체 건설이었다.

이것은 커다랗게 운영방식과 내용에서 달라지는데, 현상적으로는 이전의 1백80여명의 대의원들이 1천5백여명으로 확대되었고 내적으로는 학우들의 현재적 요구와 사안을 중심으로 투쟁을 짜들어가는 점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예전의 전대협의 한계가 완전하게 극복될 지는 미지수이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총합을 새로운 모색으로 나타나고자 했던점은 일단 긍정성을 던져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다가올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대협 보다는 더욱 가깝고 친근한 우리들의 조직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대협이 앞서서 달려가는 정의의 양심이었다면 한총련은 한국사회의 건강한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조국을 고민하고 나를 고민하는 우리들의 다정한 이웃으로 벗으로의 성격이 강할 것이다.

그리고 전대협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투쟁을 일구고 대학개혁을 실제적으로 주도하고 개선하는 믿음직한 대변자로서 이름지워 질 것이며 곳곳에 있는 백만학도의 삶의 미담과 어려움을 일구어 백만학도가 함께 의지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끈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백만학도 피모으기 운동으로 전국의 백혈병 대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전대협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한총련 시대에는 능히 치루어 낼 수 있으며 백만학도 취업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 조직 또한 한총련 시대의 조직표에는 능히 올라 설수 있는 것이다.

한총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한국 학생운동.

그동안 과격한 운동권으로만 비춰졌던 모습들이 한국 대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서서히 육중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 그 발걸음 속에 한국사회의 운명과 미래는 결정될 것이며 이시대의 방향도 결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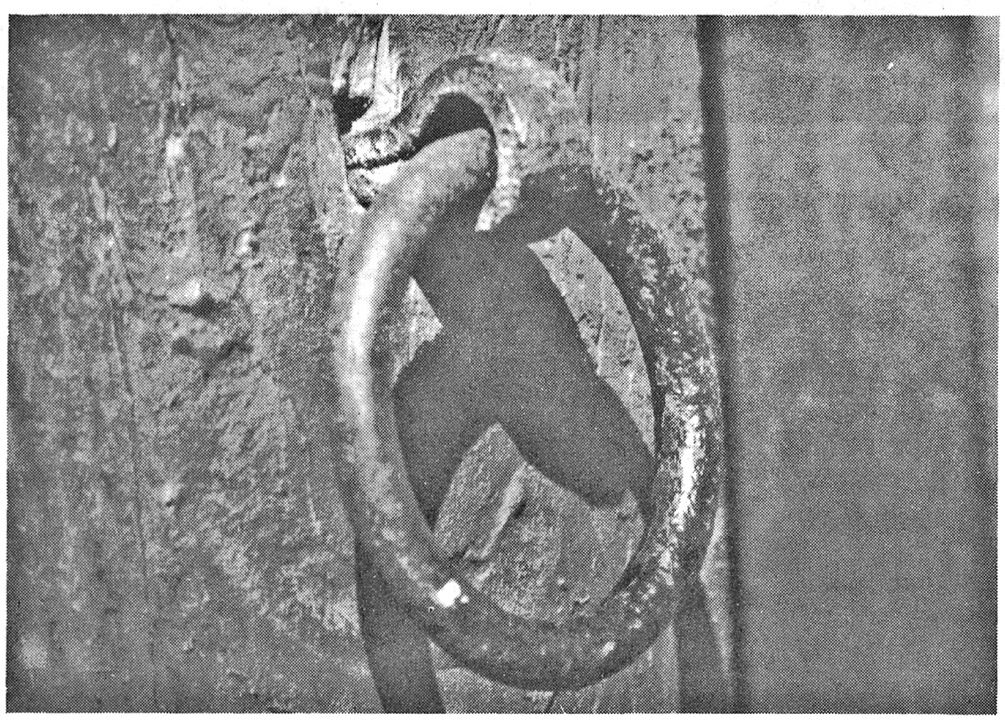
최 성 곤

< 사회대 사회학과 >

東國漫評

김 상 남

POSCO메세지 종강편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엽니다.

링컨,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든 것 중 하나는
모자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두고 언제든지 생각을 정리했던 습관이었습니다.
또 어릴때 책을 읽어주시던 어머니의 독서습관은
샤르트르로 하여금 실존주의철학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의 미래는 풍부한 재능, 변함없는 성실성
그리고 훌륭한 습관의 문을 통해서 열립니다.
이렇듯 평소에 가진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주어지는 젊음의 시간 방학
이번 방학에는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평생을 함께 할 작고 훌륭한 습관을 하나쯤 만들어봅시다.
방학때 가진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열 수도 있습니다.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

포항제철 POSCO

◇ 현지 광주가 바라보는 문민정부

민주화의 원동력인 5·18 민중항쟁

특검제, 특별법 제정으로 진실 밝혀져야

김영삼정부의 개혁의지와 5·18문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김영삼정부는 80년 광주의 처절한 죽음에서 비롯된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정부인가? 적어도 광주학살의 가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의 5, 6공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출범 토대가 광주학살을 통해 국가권력을 찬탈, 유지해 온 5공과 6공이었다는 점과, 아직 권력 기반의 절대다수가 광주학살의 직, 간접적인 권력자라는 점에서 5·18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동시에 5·18민중항쟁은 그 암울했던 80년대의 민족, 민주운동의 한중심을 관통하여 오늘의 미완적 민주발전을 이루어낸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출범했다. 첫째는 4개의 지역당 중에서 3개의 지역당이 야합함으로써 그 이전의 동서갈등에서 호남대 비호남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둘째는 폭압과 비리로 점철되어 온 5공과 6공의 토대 위에 세워진 정부라는 점과 셋째는 민족 최대의 비극인 분단상황을 이용, 또다시 용공음해 과정을 거치며 출범했다는 점이 바로 김영삼정부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인 것이다.

지난 5월 13일 담화문 형태로 발표된 5·18문제의 해결책은 김영삼정부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결과에 다름 아니다.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명예회복에 관한 일체의 의지표명이 배제된 이 해결책은 노태우정권이 민화위라는 관변기구와 사법권이 없는 국회청문회등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켰던 해결방법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관련, 보복적 한풀이로 표현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3년이란 기간 동안 광주가 음해되고 과격하게 내몰리는 과정에 대한 아무런 사과 한마디가 없다는 것은 김영삼 정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살인에 준하는 행위자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수용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데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법적 면책권을 준다는 것은 김영삼정권의 광주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기만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5·18민중항쟁의 현재성

역사의 진보적 발전은 불행한 과거의 청산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5·18민중항쟁은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매듭지어보려는 집권세력의 적당주의, 그리고 둘째는 광주만의 문제로 귀착시켜 지역문제로 보고 싶어 하는 기득권 세력의 심정, 마지막으로 과거의 문제로 덮어버리고 싶은 가해세력들의 바램등으로 5·18민중항쟁은 여전히 진상규명 등의 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5·18민중항쟁의 현재성은 지금의 미완적이긴 하나 민주발전을 이루어 낸 동력이라는 점에서 여전한 것이다. 5·18민중항쟁은 군부독재에 대한 범국민적 항쟁을 촉발시키는 계기였으며, 동시에 이후 80년대의 총체적 민주화 투쟁의 한복판을 관통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의 진보적 발전, 민주화의 제도적 뿌리내림을 위해서는 5·18문제의 분명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5·18민중항쟁은 한반도의 근현대사의 파행적 발전과정에서 비롯된 모순의 총체적 표출이었으며, 광주는 지금도 그 모순구조에서 신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5·18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과거의 불행을 해결한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호남의 정략적 소외와 의도적인 진실의 외면등을 제도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합을 모색하려는 민족적 의지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3년동안 계속 은폐, 왜곡되어 온 광주학살의 진상이 규명됨으로써 광주에 대한 일방적 오해와 편견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광주문제는 새정부개혁의 시금석

5·18문제의 해결은 김영삼정부의 개혁 추진의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5·18문제의 해결을 통한 5, 6공과의 날설, 지역갈등의 극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광주학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 특별검사제는 지금까지 양심적 법조활동을 해온 인사들을 임명하여 그동안 군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사장, 은폐시켜 온 진상관련 자료와 행위에 대해 특별 권한을 갖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사법권을 갖고 조사를 함으로써 국회청문회등이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제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 예를 들어 암매장에 관여한 인사들이 양심선언을 할 경우에 대한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18문제의 해결은 대통령이 광주시민에게 베풀어주는 시혜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관련피해자에 대한 위화감을 없애야 한다.

그것이 바로 특별법에 의한 문제해결이다. 이 특별법에는 문제해결의 5대원칙이 담아지는 것으로서 특검제를 통한 철저한 진상의 규명, 가해자들의 의법처리, 보사법 폐기및 배상법 시행, 당시의 군사재판의 원심파기를 통한 명예회복, 그리고 시민과 관련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주체의 법인체로의 구성을 통한 기념사업 추진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묘지성역화의 조속한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대해 관련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없이는 결코 묘지성역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0년 당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지도 못하고 파묻어야 했던 것이 지금도 한이 되고 있다. 이런 유가족들에게 묘지 성역화는 그만큼 절실한 바램이며, 성역화 및 묘지에 묻혀 민주의 성지로 추앙받게 되는 것이 13년의 고통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그 간절한 바램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도 진상규명을 위해 묘지성역화를 거부할 수 밖에 없기까지는 또다른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면 13년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광주의 외로움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정 동 년
〈5·18 광주 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 5월항쟁 13주기 맞는 광주를 다녀와서

"진상규명 그날까지 광주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 13일 김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광주문제의 해결은 역사가 판단내릴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보복성 책임자 처벌은 대화합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며 누구도 사과하지 않은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용서와 화합의 '통큰 단결(?)'을 보여줬다.

결국 김영삼정권은 한국현대사의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은, 언젠간 풀어야만 할 광주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띠지 못한 채 그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18일 광주는 5월 따가운 햇살아래 다시한번 망월묘역의 영령들을 위한 추모제를 가졌다. 역대 유래없던 광주시장의 추모사 낭독과 광주학살책임자 화형식까지 치러진 추모제는 그러나 광주시민과 재야·학생들의 가슴에 '멈추지 않은 외침'으로 남은 5월 민중항쟁의 맺힌 한을 풀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민중항쟁 13주기, 문민정부 출범 3개월. 광주는 또 다른 '오월'을 맞이하고 있다.

문민정부를 맞는 광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국가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5·18민중항쟁은 살인죄만 적용될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기관에 의한 국가권력 찬탈목적의 내란의 음모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정동년) 허연식(31)간사는 13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5월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광주는 지난 13년 동안의 한과 설움을 정권교체로 풀고자 했던 14대 대선의 좌절이후 해결의지의 의욕마저 잃고 있을지 모르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 80년 당시 시민군에게 줄 주먹밥이 만들어졌던 양동시장일대 시민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문민정부의 개혁속에서 광주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5·18당시 부부와 딸이 모두 총격을 당해 후유증을 앓다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막내딸 내향(88년 광주 청문회 당시 12세로 최연소 증언자)양마저 불구가 된 전 5·18부상자회 부회장 김성수(61)씨는 "현정권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5·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양면적인 왜곡, 희석화정책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해결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낸다.

지난 3월 18일 김대통령의 망월동 참배 저지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러한 반응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은 학생들의 물리적 행동이라는 방법적 측면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의장 오창규(전남대 총학생회장)군은 "진정한 해결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이다. 참배를 저지했던 우리의 행동은 5월 투쟁속에서 명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표명"이라고 밝히고 "그 당시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의해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우리의 행동은 진상규명 없는 망월묘역참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고수였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다"라고 말한다.

이와같은 광주시민·학생·재야단체들간의 입장차이는 얼핏 광주의 혼란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새정부를 맞아 진상 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노력의 모색들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그러나 새로운 모색

또한 이러한 모색은 김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한 '15인 면담대표단' 구성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4월말에 결성된 대표단은 5·18단체장, 시의원, 재야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단의 총책임자이자 5·18위령탑건립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장인 강신석(55)씨는 5,6공 새력기반위에 선 현 정권의 개혁한계를 비판하며 원칙적으로 법적·제도적인 광주해결창구마련과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90년 광주보상법을 개정, 광주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민주당조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빠진 해결책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광주민주청년회 강기정회장의 말처럼 정부나 제도권내의 해결책과 광주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재야, 학생들을 포괄하는 광주시민들의 요구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손해배상 등으로 이루어진 5대원칙과 15개조항의 요구안으로 요약된다.

특히 특별검사제도입과 특별법 제정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된 부분인 15개조항의 요구안은 5월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광주시민들의 염원인 진상규명의 핵심이 바로 특별검사제 실시이다.

진상규명없이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자리매김은 생각할 수 없으며 국가적 힘을 갖춘 특별검사의 책임있는 조사에 의해서만 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에는 90년 제정된 '광주보상법'을 폐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구와 법조항의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과 관련 얼마전까지 '폭도'취급을 받던 5월항쟁 관련자 및 피해자들의 정당한 평가와 기념일 지정, 기념사업회의 법인격 위임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 망월묘역에서 있었던 5·18 13주기 기념식 모습.

이에대해 강신석씨는 "1백% 관철을 바라보진 않는다. 하지만 우선 순위를 두고 선차적 양보는 있을 수 있으나 원칙을 양보한 5월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5월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안을 타협과 절충으로 변질시킬 순 없다는 생각은 15인 대표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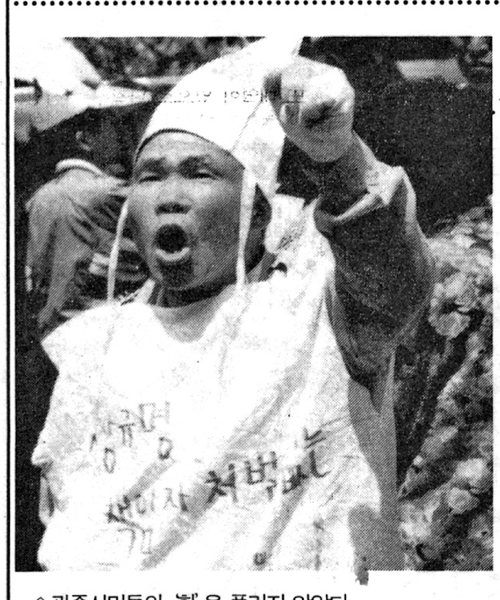
현재 광주에서는 이의 관철을 위해 특별법제정촉구 1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이 끝나면 그 결과를 임시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광주로'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 선전문구는 5월항쟁이 더이상 광주지역에서 국한된 문제로 인식됨을 벗어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민주화 실천운동, 나아가 민족적 역사인식의 문제로 부각되길 원하는 광주시민들의 또다른 기대감과 바램의 표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도 5·18광주항쟁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한'은 더욱더 골이 깊어간다. 아직도 그때의 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환 기자>


◇광주시민들의 '한'은 풀리지 않았다.

◇피끓는 청춘의 혼이 다시 오기를….

MOTOROLA

무작정 기다리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모토로라 무선호출기 '익스프레스' '카드형'

삐삐만 있으면 무소부재 !

"과임원이라고 학회실에만 붙어있을 수야...!"

행사라도 있으면 찾는 사람은 더 많고,
그렇다고 학회실에만 죽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 ...
삐삐와 함께라면 행동은 자유죠.

사랑하는 그를 언제나 내 곁에 !

"아, 오늘은 갑자기 만나고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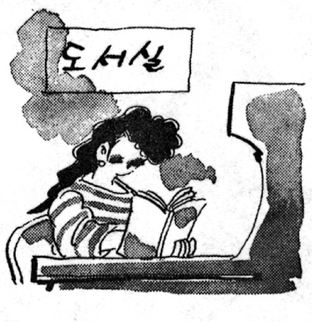
서로 머무르는 장소가 일정치 않아
연락이 곤란했던 적 있으시죠?
이젠 적어도 본의아니게 바람맞힐 일은 없어지겠죠.

선후배들을 빠른 시간내에 한 자리에 !

"우리 써클 스타가 따로 있나요. "

그 선배님은 늘 바쁜 스타?
써클의 기동력과 단합을 위해 삐삐를 마련하시면
삐삐가 바로 스타가 되죠.

무음 진동신호로 맞추어 조용하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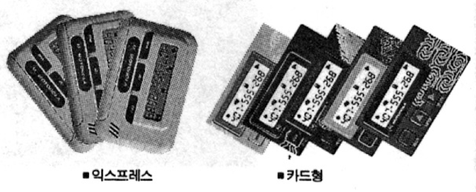


"소리가 안 나니 강의 중에도 안심!"

삐삐 에티켓 한 가지 -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는 미리
무음 진동신호로 맞춰 놓으셔야죠.

8가지 다양한 색상의 '익스프레스'
삐삐가 호주머니에 쏘옥! '카드형'

이젠 무선호출기도 개성시대 !
8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감각과 센스를 표현하는
모토로라 '익스프레스'와
얇고 가벼워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간편한 모토로라 '카드형' 호출기 -
특히 카드형은 5가지 디자인의 스티커로
취향에 따라 수시로 앞면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카드형

• 삐삐 사용법은 이렇게 간단!
먼저 상대방의 호출번호 (012)-(XXX)-(XXXX)를 누르신 후,
'삐삐' 소리가 나면 자신이 연락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눌러 놓고,
수화기를 내려 놓은 채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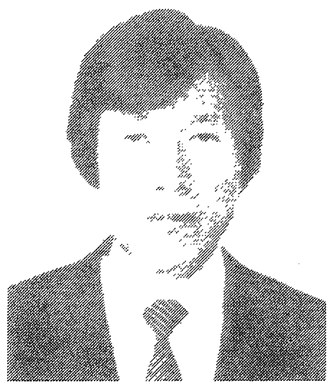
고객 상담 센타
• 수신자 부담전화: 080-233-0120(서울지역)
• 직통 (02)733-0120

MOTOROLA
모토로라 반도체통신(주)

인터뷰

• 강신석 목사(5·18기념 사업추진위원장)
• 조천호군(고 조사천 열사의 아들)

"현정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광주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강신석목사를 만나

"김대통령은 바로 지금이 역사속에서 광주가 바로서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5월항쟁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새정부 출범후 첫 지방순시지로 광주를 택한 김영삼대통령은 광주방문시 '광주지역 운동단체·재야인사를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광주지역 5월단체 대표, 재야, 관련인사들은 구체적인 면담을 논의했으나 지난 3월18일 김대통령의 망월묘역참배 저지이후 면담이 좌절되어 다시 시의원을 포함한 '5월문제 해결을 위한 15인 대통령면담 대표인'을 지난 4월말 구성했다.

15인 면담대표의 상임대표인 강신석(55)목사.

'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한 강목사는 5월문제 해결은 우선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도입을 주요 내용으로한 5대원칙과 15개 조항의 요구사안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15인 대표는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원칙과 요구사안들을 시민 및 5월단체·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정리한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시민공청회를 통해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광주시민들 사이에선 5·18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바램이 어느때 보다 높다고 밝히는 강목사는 또 지난 3월18일 망월묘역 참배저지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할 순 없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 방법적 측면에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을만한 과열된 모습을 보인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첫 문민정부 출범을 맞는 지금 상황이 5월문제 해결의 전환기로 생각할 수 있으며 면담 대표단 결성자체가 대화로 문제를 풀수 있는 평화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의 봄'과 함께 다가온 암울했던 80년 그때. 강목사는 광주지역에서 야학활동을 하며 사회개혁과 역사인식에 새로운 눈을 떠갔다.

5·18당시 강목사는 배후인물로 주목받아 17일 제1호 지명수배자로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도피해야 했다.

그때문에 그는 한동안 광주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기비하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강목사는 비민주에 항거해 군부와 맞서 일어서야만 했던 동지들과 감춰진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광주청문회는 5·18을 폭동으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취급했던 과거의 오욕을 벗고 희생자에 대한 입막음 정도의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기만적인 미봉책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강목사는 5·18에 대한 지난 군부독재 말기의 양비론적 태도나 현정권의 대화합론으로는 5월문제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정권은 역사적 관점에서 5·18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것"이라고 강목사는 다시한번 강조한다.

원칙없는 5월문제 해결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강목사는 그러나, "힘의 역학관계에서 미래를 유연성있는 양보는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노력으로 심포지움·서명운동등을 통한 전국적인 5월문제 인식확산모색을 지적하는 강목사는 50살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 청년의 기백이 넘쳐나는 음성으로 마지막 말을 이었다.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우리민족의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판식 기자>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조천호군을 만나

광주기계공고 3학년 조천호(18)군.

농구와 기타치기를 즐기며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는 조군은 다른 또래의 학생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수줍음 잘타는 내성적인 사춘기 소년 조군에게는 해마다 찾아오는 5월 18일이 그의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의미로 찾아온다.

5·18민중항쟁을 기억할때마다 떠올려지는 한장의 사진-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있는 꼬마.

영문도 모르는 채 한곳을 주시하고 있는 초롱한 그 눈망울에는 5·18의 아픈역사와 그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만날 수 있다

"제가 4살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대로 나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 외곽에 자리잡은 아담한 1층 양옥. 바로 그 사진의 주인공 조천호군은 이미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어릴적과 같은 맑은 눈망울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어렸을적 적극적이고 활달했던 조군이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간 것은 중학교때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있는 사진이 공개되고 각종 언론에 시달리면서 부터였다.

한창 민감했던 그 나이 조군에게는 갑자기 다가온 아버지의 존재가 부담스러웠을지 모른다.

어머니 정동순씨는 "아버지 없이도 잘 생활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다"며 3남매에게 민주의 제단앞에 몸을 바친 아버지의 희생을 떳떳하게

◇4살때 아버지를 잃은 조군의 모습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자동차를 직접 만들겠다는 조군과 어머니가 다정스런 모습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말한다.

조군의 아버지 조사천씨는 당시 건축업을 하던 평범했던 시민으로 21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생을 구타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시위대에 합류, 집을 나간지 30분만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어렸을 적에는 5·18을 폭동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민주화를 위한 소중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조군은 이제 아직까지 왜곡되어 있는 5월항쟁의 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할 만큼 자라있었다.

현재 5·18이후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광주어린이 대공원에서 일을하며 세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정씨는 힘겨운 살림속에서도 아무탈 없이 잘 성장해주는 천호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정씨는 현 정부에 대해 "유가족에 대한 특별보상 및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군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건축업을 하던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설계를 전공하여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그것이다

5·18 진상규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그동안 수줍게 대답하던 조군의 태도가 한순간 무거워지며 역시 조용한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고 만다.

"빨리 80년 5월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기에…"

당시 어린나이였던 조군은 기억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 이제 성년을 맞을 조군에게는 풀어야할 기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비단 천호의 문제만은 아닐것이다.

<사회부>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⑥경상대 김인제 학장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여건 필요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 확충이 절실

1947년 9월 동국대학 정경학부 경제학과로 출발한 본교 경상대학은 53년 동국대학교로 승격되면서 법정대학 경제학과로 개편됐다.

이후 59년 상학과와 경영학과를 증설하고 63년 경상대학으로 독립 68년 상학과를 무역학과로 개명하였다.

76년 회계학과 신설, 84년 정보관리학과 신설 등으로 양적·질적 확장을 해온 경상대학의 김인제(경제학)학장을 만나 경상대 현재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경상대학의 설립취지는.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즉 경제인 및 기업인, 관리자 등이 많이 필요하게돼 이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경상대학의 교육목표는.

=생활에 있어서 합리적인 경제생활영위를 위한 기본적 학문탐구와 더불어 졸업후 사회진출을 위한 실무학습등이다. 또한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유입되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해 교육한다.

-경상대학 졸업생들의 진로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취업한다. 진로는 전공에 맞춰 금융계통이나 대기업 등이고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취업률은 좋은 편이다.

-졸업생들의 올바른 사회진출상이라면.

=앞으로 세계는 국제간의 무한한 경쟁시대가 되므로 우수한 기업인·금융인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적인 사회에 발 맞추기 위해 인적양성이 필요한 시기에 대기업으로 진출해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소질을 배양하는 것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제적인 기업가가 돼야한다.

한편 금융계로 진로를 잡은 학생들은 올바른 금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성되어져야 될 여건은.

=학생들은 전공이나 영어이외에도 제2외국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을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학교도 이에따라 정보처리기술등 정보화산업에 대응하는 보다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논의를 통해 교과과정을 시대에 맞는 학문으로 개편하고 있다.

-경상대학 학생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면학분위기 쇄신과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현곡학술문화상을 시상한다.

이 상은 10여년 전부터 실시해 왔으나 최근 몇년간 그 맥이 끊어졌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다시 정비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의 합격률은.

=1년에 10명내외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준비생들에 대한 지원은

=계산고시학사에 공인회계사 준비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며 실험실습비와 보조금을 합해 한 학기에 한차례씩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합격생을 보다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외부교수 초빙특강을 자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앞으로 경상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면학에 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며 우수교수의 영입또한 필요하다.

특히 컴퓨터실습실의 기자재 확충이 선행돼야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면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서클생활도 해보는 것이 좋을듯 싶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조직속에서의 대인관계인듯 싶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나 학교당국에 바라고 싶은 점은.

=학교당국은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학생들은 이에따라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며 이와함께 학생들은 교우관계를 폭넓게 하고 조직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석종 기자>

통악로

"야, 이 놈들아 이게 문민정부냐!", "때리지마! 학생들을 왜 때려!"

지난 18일 해가 저물때쯤 어느 한 시민이 외치는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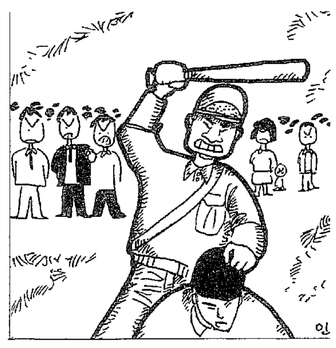
이날 오후 6시 연세대 도서관앞 광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학생들이 전두환·노태우 체포선봉대를 결성하고 가두로 진출하려고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문민시대와는 걸맞지 않게 전경 2천여명과 다연발 최루탄 발사기, 페퍼포그차2대 등 5·6공시대의 시위진압 광경을 무색케 할 정도의 물량이 투입됐다.

얼마후 몸싸움이 벌어지고 최류탄을 무작정 쏴대고 곤봉과 죽도를 휘두르며 학생들을 진압하는 전경들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은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이게 무슨 문민시대야!", "저것들도 똑같은 놈들 아냐!"

"광주학살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노태우를 구속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은 연희동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갔다. 이때마다 이어지는 시민들의 격려는 진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민중의 목소리였다.

문민 최루탄



전경이 휘두르는 죽도와 곤봉에 맞고 방패에 찍히고 돌에 맞아 피를 흘리던 학생들조차 이 응원의 소리에 힘을 얻은듯 한발씩 앞으로 나갔다.

또 대열이 앞으로 나갈수록 시민들의 호응은 커져만 갔고 이런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전경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학생들은 한총련 깃발을 앞세우고 연희동 입구까지 다달았고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듯이 전경들은 양쪽 길을 모두 막고 최루탄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어느 한구석 빠져나갈 곳없이 독안에 든 쥐꼴로 길바닥에 엎드려 최루탄 연기를 피해보려는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최루탄 세례는 계속됐고 백골단의 폭력은 너무나 잔인했던 것 아닐까.

이 광경을 보며 지나가던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문민정부인가!"

<이석종 기자>

제3회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 속에 내일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1924년 창업한 이래 꾸준히 성장·발전해 온 삼양사가 금년에도 대학생 여러분들이 상아탑에서 연마한 학문적 이론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장을 마련, 제3회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참가대상
-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2. 논문주제
-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
- 대학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산학협동방안
- 국제화에 따른 인재 양성 방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방안
- 남북 경제 통일시의 대북사업화 방안

3. 응모요령
- 원고는 타이프나 워드프로세서로 30~40매 내외로 작성 (※ 재출시 2~3매 내외의 요약분 첨부 요망)

4. 응모마감
- 1993년 9월 3일(금)

5. 제출처
- 당사 인사부 인사과 논문현상 공모 담당자
- 우편접수시 당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63 (주)삼양사 인사부 인사과, 우편번호 : 110-725)

6. 당선작 발표
- 1993년 10월 5일(화), 당선자 개별통지 및 월간지 게재

7. 시상내역
- 최우수작 1편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작 1편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가 작 3편 : 상패 및 상금 50만원
- 응모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제공

8. 기타
-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국내외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합니다.
- 논문 응모시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EL : 740-7155, 7157)

삼양

• 주식회사 삼양사(化繊,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 삼양중기주식회사 • 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성주식회사 • 신한제분주식회사 •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 디완 살만 파이버 • 삼양그룹종양연구소 • 삼양그룹의약연구소 • 삼양그룹선일연구소 • 양영회 • 수당장학회

- 동국대학교 개교87주년 -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사
회주 우상오
주지 옥지성
대중일동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 0556)72-0100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조계총림
松廣寺
방장 회강승찬
주지 보성
대중일동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 0661)53-2130/3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고정일외
사부대중 일동
☎ 0433-43-3615

三仙布敎院
三仙僧伽大學
院長 志光
講師 妙洵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255번지
☎ 02)923-0582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포교원
哲學博士 장각성
신도회장 이묘지행
거사회장 이복주
건강법사 박찬규
통신대 定法大學 (불교지도자협회)
강동구 성내1동 551-26
☎ 02 474-0554
FAX 02 472-5292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通度寺
方丈 月下
住持 泰應
대중일동
☎ 0523382-7187

본사 주최 제31회 전국 고교생 문학 콩쿠르 입상작

시부 장원

만 남

정 석 민<경북고2>

나는
버려도 없이 공을 주는
이름없는 풀꽃일까

저기, 시립도록 푸른 하늘
승천으로 가리워진 그리움 찾아
후드득 먼데 날아가는 종다리일까

아침
누이의 비밀언양 수줍은 철쭉 아래
꽃그늘 품에 적석 눈
금붕 캐주 꽃일일까

꿈일레 베이며 쏟아지는 햇살 아래
종일
붉게 충혈된 꿈정들을 바라봅니다.

저기, 타락상인지 창파상인지
떠진 푸르싸하고 깊프러진
지친의 흔명이들이 있습니다.

말이면
어느 별지리말의 샛강을 타고
일천의 비늘 빛주는
온어레의 힘찬 곡것을
끊끊 것입니다

나 오늘
진주베이로 쏟아지는
아카시아 꽃잎 아래
그중과 만나고 싶습니다

시부 우수1석

신 발

여 승 미<영광여고2>

빛 및 그늘 지우던 하루 하가 저 버리면 꼭
직립이 사는 가시 산인 사람들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태어난다.
지리산 최아름에 버려진 수많은 짚신이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특별하지 않아
도 그것은 별이 하나의 돌이 되고 돌이
하나의 바람이 되어 가슴깊진 신발들의
매듭은 핏빛 고통이었다.

지금은 한 잔 민지리를 찾아 참파 마라
보니 교원도에 진명된 삶을 포기한 사람
들에게 무지개빛 꿈들이 밤을 내밀어 오
고 있다.

푸르름으로 망각해 버린 하늘 아래 나는
곧이어만 했다.

저 푸름푸름 펴어 있는
연등 속에
고요함으로 내가 갇히더라도
촛불 하나 빛 밝히며
침주동
하나의 상징이호
그리곤 찾아 비도은 닫을,
만나고 싶습니다

심사평 <시부>

"시 문학의 내일은 그 전망이 밝은편…"

올해는 옹모작의 전체적수준이 예년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당초예는 6편으로 장했던 입선작의 수를 8편으로 늘렸지만 그래도 역시 4~5편의 아까운 작품이 낙아서 선자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때문에 우리나라의 교교생들이 모두 혹독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문학적 역량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콩쿠르의 결과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고등학생들이 이 이기계 될 시문학의 내일은 그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우수작으로 뽑힌 정석민의 <만남>은 전년기비로 폰아지는 아카시아의 풀잎이래 그날들을 속아 내린 것처럼 …. 특복 소리와 함께 하얀 분종이 위에서 반도막만 이들의 유쾌아리가 필공고 있었다. 생달래 만나와 기념품고도 날카로운 손이 생달래의 여러랑 사이를 헤집고 들어갈때마다 나도 외통수를 빅박 굳어 대었다.

아아, 아프단 말아!"

어버다 생달래가 달랑지적 쏘아 붙일때면 난 얼른 손을 주어 나에 부어 넣었다.

"집에는 별일 없나?"

"예"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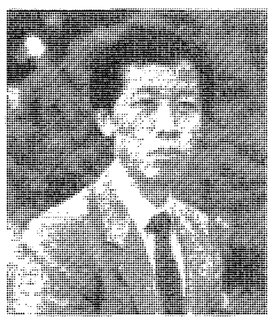
"그래야지. 힘일 있을 땐데 가지 말고 내게 오라 그래."

"예"

편신 무엇인가를 별어 내면서도 손놀림은 여전했다. 그렇게 된들을 돌보느라 그러 기다리 는 것을 나는 수가 없었다. 올타리도 사립짜도 없는 집안으로 어둠은 지십없이 몰아 치달아올랐다. 그날부터 생달래가 따주는 아카시아는 지리하게 버스를 기다릴 때면 더없이 좋은 주전부리가 되었다. 개중에는 벌써 거뭇거뭇 썬 것도 있었지만 배달처럼 희안 아카시아는 달콤하고도 향긋 가슴을 적셔 오는 아닌밤 거리고 난 생각했다. 그리고 해골에 느껴지는 곡물만은 더할 수 없는 대혼으로 남아 있은 했다. 초아홉 해상이 유년의 따갑던 날 난 아버니에게서 무리 식구가 옴새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난 온히 걱정해던 마음과의 어쩌보다는 어느날 단 수 있다는 서럽이 개를 돌려 마당을 내다보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생달래는 그림에 있지 않았다. 산딱 씩딱 한참밖이 비를 부리고 촉촉이 넓기나 피부를 적시게 감싸왔다. 먼곳에가 유난히 짙게 감싸왔다. 먼곳에가 유난히 짙게 감싸왔다. 먼곳에가 유난히 짙

교수기고 **창업의 실제와 이론**

기술창업은 경제발전과 '불가분' 관계



박 춘 엽
<공과대 산업공학과 교수·공업통계학>

서 론

기업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를 성직자의 시대라고 한다면 20세기를 기업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가의 이와 같은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창업이란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바로 기업가가 탄생되는 사건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지만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창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의 수요가 발생한다.

기업의 창업이란 개인에게 있어서 이윤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이란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공익적인 측면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창업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창업에 대한 이론과 기술이 아직 도입단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글은 창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창업지원제도, 국내외의 창업에 대한 교육 및 연구 동향을 소개하려고 한다. 또, 기업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유의 사항도 지적하여 현장감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자 한다.

창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스스로 창업하여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나 창업을 학술적인 대상으로 하려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창업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창업과정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모형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런데 필자는 창업현상을 창업의 3요소와 창업 과정으로 분해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창업의 3요소

창업의 3요소란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으로서 사업아이디어, 자본, 창업자를 지칭한다. 창업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창업을 해설하면, 창업이란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와 '자본'을 결합하여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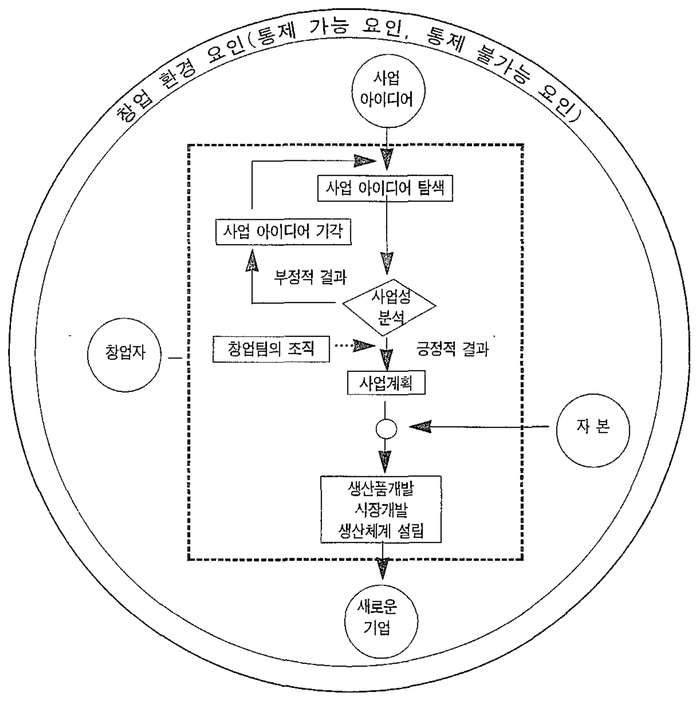
창업과정

창업의 3요소를 중심으로하여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창업의 시발점은 사업아이디어의 획득이다. 이것을 후보 사업아이디어라고 하겠다. 후보 사업아이디어가 이윤실현이라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를 조사하는 일을 사업성 분석이라고 한다.

후보 사업아이디어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예상되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킨다. 그런데 만약 후보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성분석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기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아이디어의 탐색과 사업성분석(정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을 반복할 뿐이고 창업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 이와 같은 창업의 3요소와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에 표시된 창업팀은 창업에 있어서 창업자에게 협력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물론 창업팀이 없이 혼자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1에 표시된 창업 환경요인은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회의 경제적 상태, 기술적인 기반,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된 규제, 지원제도 등과 같은 것이 창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인 것이다.



<그림 1> 창업의 3요소, 창업 과정, 창업 환경 요인

창업에 대한 교육과 연구

교육: 창업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기법, 사업성 분석방법, 사업계획작성요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창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실패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 강좌로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다. 전공분야로 다루고 있는 대학도 있다. 경영학과에서 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에서도 가르치는 곳이 많다. 예를 들면, MIT,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는 공과대학에서도 창업을 가르친다. 이와 같이 공과대학에서 창업을 가르치는 배경을 살펴보면, 기술창업은 경제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술을 기업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기술창업의 한 형태가 벤춰 비지니스(venture business)인 것이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기업과 연결될 때 결실을 보게되는 것이다.

창업강좌를 영어로는 entrepreneurship course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기업가정신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역하자면 '창업론강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창업강좌를 개설하는 유명대학들이 생기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필자가 산업공학과에서 '타당성 분석'이라는 과목에서 창업에 필요한 내용과 사업성분석 기법을 다루고 있다(4학년 2학기과목).

우리나라에서는 사설컨설팅회사들이 창업강좌를 개설하여 왔다. 2,3년 전에는 이와 같은 강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대단히 저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에서 창업강좌가 확산되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소질을 개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혁신을 이루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야말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천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는 창업이 대학원 및 학부과정에서 전공분야로 개설된 곳도 있다.

연구:창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업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를 통하여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등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 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을 위시하여 구미제국에서는 창업에 대한 연구를 196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중요한 연구분야로서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에 대한 연구가 다소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저조한 상태이다.

창업의 연구 분야는 다양한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업가의 특성
·창업자의 경영 특징
·모험자본(venture capital)
·사업성분석
·첨단기술분야의 창업
·기업내 창업(회사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킴)
· 창업교육방법
·여성창업자

창업지원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정부에서는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창업지원제도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자금, 절차간소화, 세금감면, 사업성 평가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지원대상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제조업 및 정보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이어야 한다. 이것은 제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인데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선별적인 지원 방식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 창업과정에 있어서 가장 흔한 애로사항이 창업자금의 확보이다. 자기자본이 없는 경우에 창업자금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실패의 위험성 때문에 창업자금을 융자하기란 어렵다.

이와 같은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업투자회사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다. 이회사들은 문자 그대로 창업에 '투자'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투자는 되갚는 것을 약속한 융자와는 완전히 달리 사업의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투입이다. 창업투자회사는 벤춰 캐피탈 회사(venture capital company)의 한 형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0여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설립 초기이던 1980년대 말에는 활발하였으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함께 활동이 다소 저조해져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있다.

절차간소화: 기업을 창업하는 데는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있다. 사소해 보이는 절차도 창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간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기술집약형 창업, 농어촌지역 창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창업지원 창구에서 절차간소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는 창업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인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제적인 요령을 몇가지 제공하고자 한다.

사업기회의 포착: 사업의 시발점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옛날에도 어려웠겠지만, 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유망한 사업기회를 포착하기란 정말 어렵다. 다음과 같은 요령들이 사업기회 포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인이 잘 아는 분야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경험, 전문지식, 관심분야 등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사업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가, 기술자, 발명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합작 등을 도모한다.

·박람회, 전시회, 해외 여행 등과 연결하여 탐색한다.

·새로운 기능, 원가절감 방안, 좀 더 편리하게 하기 등의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한다.

사업성검토: 사업을 실행하기에 앞서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전문가의 조언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도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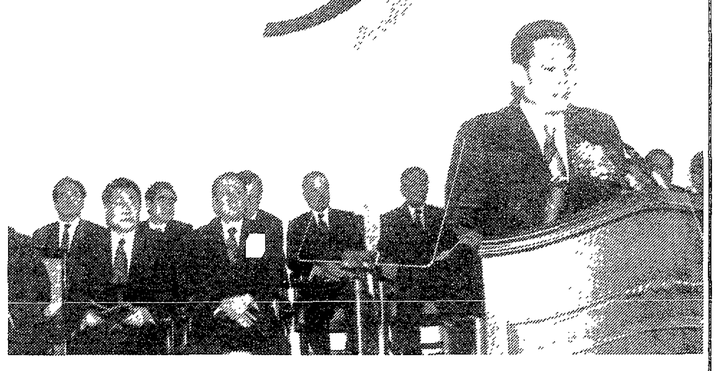
자금조달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점은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자금이 부족하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다된 일을 그르치게 된다. 자금부족은 사업실패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조직: 창업팀, 창업 후원자집단(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사업 성공에 기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인적인 유대를 중요시하는 사회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

맺는말

여기에 소개한 내용은 창업에 대한 대단히 초보적인 내용이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미 출간되어 있는 서적, 사업가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창업을 학술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초기의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므로 유망한 분야로 보여진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제2창업 5주년기념



기업가 정신의 혁신 … 경제발전의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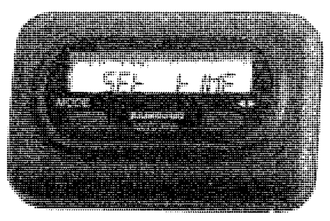
사업기회 포착·자금조달 등 실제내용준비가 성공률 높여

대학인의 필수품 "삐삐"

고감도 수신 "SRP-3300N"
○40개의 전화번호기억
○수신전화번호 보호기능
○Beep음/진동형 경음

다정한 연인에게 「사랑의 오작교」
아르바이트 동반자 「리쿠르트」
캠퍼스를 누비는 「긴급호출」

신용판매
○신용분할판매 : 3~24회
○단, 3회 분할은 무이자



초고감도 휴대폰 "SH-400"
○휴대폰, 카폰 겸용가능
○더블 안테나 시스템
○고음질 오디오 회로 채용

신감각 호출기 "With me"
○세련된 디자인
○초소형(46㏄)초경량(56g)초박형(14㎜)
○편리한 기능(시간표시, 전화번호, 보호등)

SAMSUNG 삼성전자

친절과 신용의 삼성 무선기기 대리점
유 풍 전 자
☎ 277-6300, 278-3536

7·9급 공무원 司法試驗 · 行政高試

※7급(136명),9급(479명)합격시킨 전통의 전국 최대시설 최고 강사진!!
▶7급:93년7월시행대비▶9급:93년 9월 시행
★행정직, 기술직, 세무직, 감사직, 전산직, 법원직, 검찰직
▶교재. ●7급 과목별기본교재 :9,000원~10,000원
●9급 과목별 기본교재 :8,000원~9,000원
▶강의 기본이론(2개월)문제풀이(1개월-개강6월1일
▶시간 오전반(09 00부터)야간반(19 00부터)
※적중 예상문제 새벽무료공개특강(07 30~08 30
※공무원시험정보 안내책 실제문제 무료 배부중!!

법원사무관 | 입법고시 | 기술고시
★종합반,단과반,기본강의-8주완성
★저명교수 단기특강-4주완성
• 헌법,민법총칙,한국사,정보체계론
• 민법,형법,민소법,형소법,경제원론
• 행정법,상법,행정학,정치학,문화사
• 국민윤리,국어,고시영어,TOEFL
• VOCA,독일어,일어,중국어,불어

한교사법행정연수원
• 신림동 고시촌 현대아파트입구(874-3011 · 2)

한국통신 · 이동통신
★4,6급 행정, 통신기술,전산직: 93년 11월초 시행
▶영어,수학,사회,전자계산,물리:각권9,000원
▶강의:기본이론(2개월)문제풀이(1개월) -개강6월1일
※적중예상문제 새벽무료공개특강(07.30~08'30)
※한국통신시험안내책,실제문제 무료배부중!

외 국 어 강 좌
• TOEFL,VOCA,영어순해,기본영어,종합영어
• 어린이영어,중1,2,3영어,기초영문법,어머니영어
• 독일어,중국어,일본어,불어,문법 및 회화
※공개강좌 - 5월30일 13 00~20 00

한교외국어학원(개강:6월1일)
노량진역앞(812-4144, 812-0678)

공 인 仲 介 士
▶교재-각과목별기본교재 각권 7,000원 기출예상문제분석 정가 7,000원
▶강의-1,2차 종합반(2개월완성)-개강:6월1일 오전(10:00~13'00), 야간(19'00~22·00)

교 육 학 + 전 공 특 강
★'94초 · 중등교사 및 양호교사 · 유처원교사 시험 대비 (교사임용시험 안내책 · 실제문제 무료배부중)
★교육학전공(교육과정)실제예상문제집 (각권12,000원)
▶교재
• 수험 교육학(한민석 저'14,000원
• 요해 교육학(신정철 저:12,000원
• 완전 교육학(구평회 저:15·000원
• 수험 간호학(김일옥 저:12,000원
• 간호학 예상문제집(김일옥 저·6,000원)
▶강의-저자 직접 강의중
• 기본이론(2개월), 문제풀이(1개월)-개강:6월1일
• 시간.월화수반(주 · 야), 목금토반(주 야), 주말반

鑑 定 評 價 士
▶교재-각과목별 기본서 각권 10,000원 기출예상문제분석:정가 10,000원
▶강의-1,2차 종합반 각2개월완성-개강6월1일 오전(10'00~13:00),야간(19:00~22:00)

法 務 士 특 강
▶교재-각과목별 기본서 각권 10,000원
▶강의-1,2차 종합반 각2개월완성-개강6월1일 오전(10:00~13:00),야간(19:00~22'00)

고시 · 승진
행정법 송회성박사
행정학 강길봉교수
헌 법 황성필교수
경제학 송인권교수
형법 형소법 서윤길교수
민법 · 민소법 박종문교수
전산학 오귀종교수
TOEFL 윤현우교수
VOCA 최상봉교수
정보체계론 임춘근교수
민법총칙 박종문교수
회계학 최병호교수

行政學原論
姜吉泰著 정가14,000원
※요해행정학 정가4,000원
※객관식 행정학 정가10,000원
※노량진한교고시학원에서 저자직접강의중(土 · 日)
개강:6월1일(2개월완성)
한교고시학원
• 노량진역옆(817-8366~9)
• 노량진역앞(813-6004~5)
도서출판육서당
동작구 노량진동 72-3
(TEL 824-7246 7 FAX.824-3182)

전산학개론 정가 10,000
전자계산일반 정가 9,000
김인재 · 오규종공저
행정고시 · 5級昇進 · 7級公採對備
한국통신 시험대비 7 · 9급 공무원및
※노량진한교고시학원에서 저자직접강의중(月 · 火)
개강:6월1일(2개월완성)
한교고시학원
• 노량진역옆(817-8366~9)
• 노량진역앞(813-6004~5)
도서출판육서당
동작구 노량진동 72-3
(TEL.824-7246 7 FAX·824-3182)

옥서당 전국지사 및 교재 구입처
• 서울·817-6007 • 부산·88-0204 • 대구·255-0012
• 대전·254-2276 • 청주·54-4124 • 전주 82-5660
• 안양·68-2985 • 마산 43-8080 • 목포·74-2932
• 수원·46-3166 • 광주 222-8260 • 이리.51-2001
• 인천·437-7676 • 천안 567-6440 • 안동.54-2288
• 경주·43-2089 • 울산·45-1163 • 원주 44-1294
• 의정부·43-2210 • 포항.47-6345 • 성남 751-9400
• 마산.45-5554 • 순천 51-0508 • 영주·34-3920
• 춘천.53-8192 • 제천.43-3289 • 강릉·43-8508
• 진주·42-0067 • 제주·53-0075 • 이리.53-1074
• 광주·225-0680 • 전주.85-3330 • 충주·44-3410
• 부산.819-8001 • 전주·84-6658 • 서울·817-6003

종로서적 · 을지서적 · 동화서적 · 교민문고 · 서울문고 · 고보문고 영풍문고 · 국민문고 · 영등포문고 · 신촌문고 · 영광도서 · 동보서적 · 제일서적

한교고시학원
• 노량진역옆(817-8366·7)
• 노량진역앞(813-6004·5)

공 평 학 원
종각역(736-0555)

삼정고시학원
천호동(477-7044)

도서출판 **육서당** (817-6004 · 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3 (TEL:824-7246 · 7,FAX:824-3182)
●시험정보센터 · 육서당(노량진역앞·817-6007 8)

권오산
"그가 시인 이문재와 만나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레코드점에서 만나십시오
동인기획 PRODUCTION DONG-IN

5月의 마지막 축제
〈무료관람〉
당신을 초대합니다
팝송 경연대회
5/29 3 PM 10개팀 참가
Dance with her
발레, 뮤지컬 댄스 레이저 하이라이트
누구나 오십시오. 전화문의 환영
대표전화 568-3322
강남역 6번출구
이익훈 어학원

영화평— 북한영화 '새'

새를 통해 민족분단 비극·통일 염원 그려

이북자연환경 그대로 살려 두동강 난 조국 실감

올바른 역사인식… 예술작품 금지의 벽 해소

'철폐'의 기미가 안보이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북의 문학예술작품을 평하여 공론지에 내놓는 일은 이남의 어느 누구에게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사상과 체제가 다른 곳의 작품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작품의도와 구성이 어떠한 형상화로 구체화 되어 무엇을 시사하려 하는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신 이북의 작품이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과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려 한다.

92년 동경 국제 영화제 아시아 수작영화주간에 아시아 여러나라의 8개 작품과 함께 선보인 영화 '새'는 이북과 일본의 합작으로 현재 경희대학교 원무부 박사와 그의 아버지인 이북의 조류학자 원홍구 박사가 전쟁이후 '새'를 통한 교신의 방법으로 헤어진 부자가 생사를 확인하게 된다는 실제의 이야기로 민족 분단의 비극과 그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과 해후의 열망을 절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전체적인 흐름속에서 반영되어지는데 몇몇 장면구성에 의해 더욱더 부각되어진다.

우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열망을 갖게한다. 작품의 배경이 이북의 자연광경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 조국의 공간적 실제가 뚜렷이 두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확인케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표현은 저어새의 서식처를 찾아가다가 38도 군사분계선에 막혀 더이상 가지못해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도 만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표현이다. 원박사가 세계 조류 학술모임에 참가하기전 잠을 뒤척이다 꾸게되는 아들 상봉의 꿈은 외세로 인한 분단 이산가족이 만나야 한다는 7천만 겨레의 절실한 요구를 담고있으며 동일한 언어와 생활상으로 비추어지는 이북 인민 배우들의 연기속에서 조국의 인격적 실체인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진한 민족애의 정서를 갖게한다.

또한 서울광경 사진과 원무부 박사가정을 형상화한 부분을 통하여 이북이 이남을 이해하는데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다는 태도를 보게한다.

최근 영화 '새'가 대학가를 중심으로라도 시사된다는 점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작품과의 만남이 이북것이라는 호기심에만 치우쳐 일회적인 감상의 차원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남사회에서 그나마 가장(?) 쉽게 이북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는 만큼에 철저한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설사 동작품이 이북의 이미지 변신을 위한 홍보용으로 이북사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작품일지라도 우리는 일단 이작품의 원칙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한다.

우리 판단의 근거는 간단하다. 바로 민족대단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 하는 내용인가 아닌가로 가르면 된다. 이 원칙이 존중되는 내용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여줘야 하며 이 원칙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밝히고 재단하면 된다.

◇새를 통해 민족분단의 아픔을 그린 이 영화가 일반상영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경에 원병오 교수와 이장호 감독이 이영화의 수입과 국내 상영을 시도했었지만 이북 예술작품 금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것을 문민정부가 해결해줄 것인가? 책임있는 관람자가 분단 49년의 역사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속에서 자유로워 지려할 때 가능할 것이다.

박 재 원
<불교대 인철 93졸>

딜레마 천경에

대학교육의 본질

조 창 우 <상경대학 경영학과 교수>

대학을 흔히들 자유·낭만·진리·탐구의 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학본연의 모습은 진리탐구로 두말 할 나위없이,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의적인 사고를 훈련하는데 있다. 창의력을 훈련하는 전제조건은 모험정신이며, 모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도될 수 있다.

또한 산업 세계에서 창조에 이르는 상상력은 '하면 된다'는 신념과 자세 그리고 의지에서 발휘된다. 그것은 결코 천재성을 요하지 않으며 범재(凡才) 수준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된 사실을 쉽게 발견해 낼 수가 있다. 그것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서나 기업체에 몸담고 있는 회사원들에게서나 전공분야와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 또는 내 능력에서 벗어 나는 것으로 알고 아예 노력조차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사회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큰 과오가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창의력과 상상력 발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상상력이 창조로 연결되는 세계는 분명히 목표의식과 줄기찬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창조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첫 단계는 창조의 방향이 결정되고 문제가 정의되는 단계이며 다음은 이렇게 정의된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라고 한다. 콜럼버스의 계란도 끝난 뒤에 살펴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콜럼버스의 계란 뒤에는 신비나 불가사의는 없다. 오직 남다른 자세와 의지가 있었을 뿐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 교육의 위기를 깨닫고 있다. 지금껏 매스컴에서 대서특필된 입시부정등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 교수채용에서의 비리가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이 있지나 않은가 하는 의구심들이 대학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의 창의력 배양을 가로 막고 있다. 며칠전 신문에 보도된 한국인의 삶의 질은 세계 1백42개 나라중에서 33번째로 높다고 한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수명과 교육 그리고 구매력이었다고 한다.

과연 오늘날 우리 대학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현실이 실제로 그와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 기준은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창의력의 교육이 아닌,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에 대한 평가로 봄이 더욱 타당하리라는 생각이다. 과거 70년대초 부터 오늘날까지 21세기를 향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대학은 진리탐구의 장으로서 순수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성숙 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대학, 21세기를 대비한 바람직한 대학위상의 재정립이라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현실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하며 근시안적 대안들만이 제시 됨으로써 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창의력과 상상력의 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창의력과 상상력 그것은 대학이 마땅히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어야하고 학생들은 당연히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만족 경영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경영정책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도 이제는 주요 고객인 동문, 재학생, 학부모에게 이제는 만족을 주어야 한다. 고객만족은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에 있어서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은 순수하게 전공학문분야에 있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불가의 메아리

유식학— 심체·심작용의 세밀한 분석

대승적 유심·연기사상과 일맥상통

유식학 입문
<불광출판부·6천원>

불교는 유심사상에 입각하여 교리를 대부분 설명한다.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여 심체와 심작용을 설명하고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도 서로 불가분리하다는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정신과 물질이 서로 평등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선과 악을 나타내는 주체는 정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공은 마음인 것이다.

원시불교시대부터 마음을 중심하여 모든 사물의 인연관계를 설명하였고, 소승불교에서도 마음의 심오함을 해설하고 나아가서 물질계와도 관련시켜 진실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도 소승불교의 교리를 혁신하고 보다 대승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유식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하게 되었다.

불교의 여러학설 가운데 가장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유식학은 마음의 체성과 마음의 작용을 낱낱히 분석하여 인간의 정신생활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식학은 오늘날의 심리학이나 인식론과 비슷하다고 해서 불교의 심리학 또는 사물과 사물을 인지하는 주체자의 관계를 유심의 도리와 연기법으로 탁월하게 해명해 준다.

이와같이 유식학은 옛부터 마음의 체성과 작용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인정돼 체성과 작용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리하여 불가에서는 경전을 공부하려면 유식학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전해오기도 한다.

그것은 유식학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단어와 숙어를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유심의 도리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것은 오직 마음에 의하여 창조되어진다는 유식학의 근본사상은 대승적인 유심사상인 것이며 그리고 대승적인 연기 사상이기도 하다며 이책의 편역자 본교 오형근(불교학)교수는 유심사상을 이해하는데 먼저 기초적인 학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발표되어 왔던 원고를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편역자는 이책이 오늘날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고 법칙과 체계가 무시되는 현실속에서 2500년전의 이 심오한 불교의 사물체계를 다시 음미해 보는것이 참신한 믿음과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화부>

문화단신

새로 나온 책

◇삼다도…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주도민의 생활과 조화시켜 서술한 정인수시인의 시집. 아내를 위한 단장, 십장생도등 연작시와 서정시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시인선·2천8백원〉

공 연 안 내

◇택시! 택시…경주캠퍼스 동국연극회 제25회 정기공연. 택시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을 무대에 올려 다양한 계층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대적 자화상을 그려나간다. 6월2일부터 3일까지 오후2시, 5시. 원효관 소강당Ⅰ.

◇금관의 예수…경주캠퍼스 한의대 극단 '애오라지'에서는 부활하는 예수를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갖고 제 9회 워크 샵 공연을 한다. 5월25일부터 26일까지 2시, 5시 원효관 소강당Ⅰ.

◇재 러시아 고려인협회 회장 김영웅 박사를 만나

우리민족 동질성 회복위한 문화발전 시급

러시아 개방후 한인 문제의 실질방도 기대

소련연방 인민대표 대의원이며 재러시아 고려인협회 회장으로 있는 김영웅 박사 초청강연회가 지난 17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홀에서 열렸다.

숭실대학신문사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러시아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상과 한민족의 장래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에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장 큰 장점은 "이로인해 재러시아 동포들이 이렇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것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김영웅 박사를 만나 러시아 한인들의 생활에 대해 들어본다.

—한인들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배려는.

=법률상으로는 북방의 몇몇 소수민족의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항목만 있을뿐 그 의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바가 없다.

때문에 민족적 사상이 고조돼 가는 근래에 들어서는 자치구 설치를 주장하는 등 소수 민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인들과 같은 경우는 거주지역이 산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치구 형성은 불가능한 상태다.

김 영 웅 박사
<재러 고려인협회 회장>

조국의
역사·언어·문화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민족의 이질성 초래

—재러시아 한인들의 나아갈 바는.

=얼마전 있었던 러시아 내 한인 대표자 회의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민족이 많이 이질화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조국의 역사·언어·문화를 배우고 익히지 않은데서 온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문화적 자치 발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러시아 한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의 이질화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모국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정부에서 교육관을 파급하고 교재를 보내주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조어들을 배우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 한인들은 일제때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알고있는데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50~60년 동안 살아왔으며 이주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의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인들이어서 이들이 모국에서 생활한다고 했을때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것 부터가 문제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러시아가 개방된 후 정상급 회담을 비롯하여 많은 정치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있을때마다 재러시아 한인들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東>

대학팀 최초 에베레스트산 정상등정
하산도중 안진섭, 남원우 대원 실족사

단일 대학산악부팀으로는 국내최초로 지난 16일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산(8천8백48m)등정에 성공한 본교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하산도중 안진섭(체교4)군과 남원우(경행88졸)동문등 2명이 추락사하는 참변을 당했다.

지난해 3월11일 이인정(상학72졸·대학산악연맹회장)동문을 단장으로 총8명으로 구성돼 네팔현지로 출발한 이번 '4326(단기) 사가르마타 남서벽 원정대'는 히말라야산맥 최대난코스인 에베레스트산 남서벽 등정을 시도해 지난 4월말 8천3백m까지 접근했으나 10일간 이어지는 폭설등 악화된 기상여건으로 일반루트인 남동릉루트로 선회·정상공격을 노렸다.

이후 지난 16일 새벽 정상공격을 위해 제4캠프(8천40m)를 떠난 정상공격등반대 박영석(체교90졸) 등반대장과 안진섭(체교4), 김태곤(전기4)군등 3명은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경 정상등정에 성공했다.

정상등정후 하산하던 이들 대원중 안군이 오후 9시경 8천1백m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실족 추락사했다.

이같은 사고가 난 이튿날인 지난 17일 사고소식을 접한 남원우동문은 안군의 시신운반을 돕기위해 제2캠프(6천5백m)에서 제3캠프로 이동하던 중 실종되었다.

산악부측이 추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제2캠프와 제3캠프 사이에 넓은 크레바스(빙하절벽)지대가 자리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이지점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시신도 찾지 못한 상태이다.

현지연락에 따르면 안군의 시신은 지난 21일 헬기편으로 카투만두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대원은 22일 철수를 시작해 25일 카투만두에 무사히 집결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오는 6월2일에는 안군의 시신과 대원들이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며 안군의 장례식은 총학생회에서 학생장으로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17일 대학산악부 최초의 에베레스트산 등정소식에 기뻐하다 지난 18일 사고소식을 접한 산악부는 산악부실(도서관 지하)에 안군과 남동문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이들을 추모했다.

한편 이번에 남동릉루트로 등정에 성공한 에베레스트산 원정대는 지난 91년에도 남서벽 등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다.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도중 추락사한 안진섭군과 남원우 동문의 분향소가 산악부실에 마련됐다.

행정대학원 강연회 개최

행정대학원(원장=유광진·정치외교학)에서는 오는 6월1일 오후 7시 동국관 학생식당에서 황명수 의원(민자당사무총장)을 초청하며 "신학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혁"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이사회 열려
차기 회장에 황명수씨 선출

총동창회(회장=정재철 정치52졸)는 지난 18일 오후7시 앰배서더 호텔(서궁)에서 제5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차기동창회장에 황명수(정치53졸 민자당 사무총장)동문을 선출하는등 93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안건논의에 앞서 열린 동국을 빛낸 '동문 축하패증정식'에서는 민자당 중앙상무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정재철회장과 외환은행장 김재기(경제· 60졸)동문, 제27회 외무고시 수석합격자 황남기(인철90졸)동문등 12명이 상을 수상했다.

이어 안건 논의에서는 92년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등이 있었으며 93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의결이 계속됐다.

이날 논의·의결된 93년도 총동창회 주요사업계획은 크게 3가지로 △총동창회 자립운영기반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 △회원저변확대를 통한 조직강화 △재학생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임원개선에 있어서는 전형위원에 의한 후보 추전이후 선천하는 방식에 의해 차기 총동창회장에 황명수(정치·53졸)동문, 유주형(농 57졸)동문등이 추천을 받아 이사진의 논의와 유동문의 후보사퇴 의사발표로 황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황동문은 이날 자리에서 "불교병원, 동국학술문화관 건립등 모교의 발전사업에 최선의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문과대 '만남학교' 개최
학생회·학생간 신뢰 강화위해

문과대학생회(회장=이영조·사4)에서 학생회 집중사업으로 '만남학교'를 열었다.

만남학교는 설문조사와 개인면담을 통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각각의 주제를 설정하여 4차에 걸쳐 진행됐다.

각 만남학교는 성격에 따라 이름을 달리 짓고 부제를 정하여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제1차 선전학교는 '처음처럼 다시 함께'라는 부제를 정해놓고 각과 선전부장이 주최가 되어 선전대중매체론을 공부했다.

제2차는 지난 6일에 열린 문예학교로 '벗이여,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부제아래 신세대 소비문화와 대중가요에 대해 동노협(회장=박미·영문4)에서 강연을 하고 분임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제3차는 연애특강으로 지난 12일에, '그대와 함께 하는 사랑살이'를 부제로 택해 여성연구회의 강남식씨가 올바른 연애관과 여성관을 강연했다.

제4차 통일학교의 부제는 '우리 함께 부르는 통일노래'로 제23대 총학생회장인 정우식군이 '통일과 나'라는 강연을 했다.

만남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한 문과대학생회 윤성희(철학2)학술부장은 "처음하는 사업이라 기조세우기가 힘들었지만 학우들이 원하는 얘기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화제로 하나가 될 수있는 자리여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타단과대에서도 참여하는등 호응도가 높았던 만남학교는 단과대 학생회와 학생들간의 괴리감을 없애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세계대회 최종선발전 레슬링부 3명출전

93년 세계 아마츄어 레슬링 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최종선발전에 본교 레슬링부 3명이 진출했다.

2차선발대회에서 자유형 57kg에서 1위를 한 김선학(체육2), 자유형 48kg 2위 이재욱(경영1), 자유형 68kg 3위 김현수(회계3)군등은 오는 7월 8일부터 용인삼성체육관에서 열리는 최종선발전에 출전하게 된다.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결의대회
정부의 기만적 대응태도 규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은 '전두환·노태우 체포 선봉대'를 결성하고 지난 18일 연세대에서 '광주학살 진짜주범 미국의 공개사과와 전두환·노태우 구속처벌을 위한 한총련 결의대회'를 학생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총련측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전국민적 요구를 한 지역의 문제로 돌리고 마치 국민의 요구를 갈등의 재연으로 치부하고 있는 김영삼 정권의 기만적 작태"를 비판하며 △광주 민중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 실시 △광주학살 진짜 주범 미국의 공개사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전두환·노태우 체포선봉대'를 선두로 연세대 교문에서 연희동 입구까지 전경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과정에서 학생 50여명이 전경이 휘두른 곤봉등에 맞아 이마가 찢기는등의 부상을 당했다.

'참교육 실천 주간' 행사
사진전·물품판매등 다양하게 치뤄

사범대학생회(회장=류치건·역교4)는 참교육 실천주간을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로 정하고 각종 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행사로는 학림관 1층 복도에서 사범대 교육환경 사진전, 3층에서는 그림으로 보는 교육통계전시가 있었고 참교육 물품판매를 중앙현관에서 했다.

이번 참교육 실천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공개방송이 지난 21일 소강당에서 '사범대 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아래 사범대 학생회 교육부 주관으로 열렸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공개방송은 슬라이드 상영과 공개토론회가 열렸는데 △사범대 교육환경에 대해서 △교직진출에 대해서의 내용으로 질의, 응답,토론을 가졌다.

사범대 제모습찾기운동의 일환이었던 참교육 실천주간에 대해 류치건(역교·4)군은 "사범인이 예비교사로서 참교육의 실천주체임을 대중적으로 각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참교육 실천주간은 교육환경 개선운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홍보미흡으로 좀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일본 설화문학과 불교 관계 조명 강연회

일본적 불교형성과 설화와의 관계 조명을 위한 강연회가 '일본설화문학과 불교'라는 제목으로 대학원 불교학과, 국문과, 일문과 공동주체로 지난 19일 동국관(L306)에서 열렸다.

◇ 취재낙수— '93 임석민주 대동제를 마치고

주점마다 '만원' 기획행사장 '썰렁'
보다 다양한 화합의 장 마련 아쉬워

○…경주캠퍼스 93 임석민주대동제가 총학생회(회장=정순현·경영4)주최로 지난 12일부터 15일 4일간 교내일원에서 벌어졌다.

이번 대동제는 항상 문제로 제기돼온 '주(酒)'제의 이미지를 벗어나 크게 하나됨을 의미하는 대동제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였다.

그러나 대동제 기간중 학내 곳곳에서는 불법주점의 난립과 외부 잡상인들의 개입등으로 예전의 향락적 대동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경주캠 현안 중요사안으로 제기된 직선부총장 문제와 경주자치권 확보 움직임들을 대동제 기간중 끌어 올려내지 못한 행사 주최측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행사 첫날인 준비하는 날(12일) 오후 3시에 있었던 민속극연구회 '탈패' 주관 '통영오광대놀이'는 우리것을 찾는 대동제의 또다른 의미를 살린 유익한 행사였다는 평가. 교내 사거리를 메운 1백여명의 학생들은 흥겨운 우리멋을 즐기며 대동제의 시작을 맞이했다.

○…하나되는 날(13일)은 하루종일 내린 비로 오전 11시부터 총학주최로 문화거리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개막고사 및 길놀이가 취소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편 오후 1시부터 원효관 중정에서는 K·U·S·A주관 '전통혼례'가 50여명의 학생·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작년까지 연례적으로 경주향교에서 실시된 전통혼례는 녹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역시 우천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일어서는 날(14일)은 민중문화운동연합(의장=김세규·회계3) 해오름식이 오후1시부터 녹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 준비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고.

또한 오후 3시부터 교내사거리에서는 극단 '자갈치'의 '정신대 아리랑'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과거 뼈아픈 치욕의 역사를 진솔하게 풀어보인 이번 공연은 자칫 방만해가는 대동제의 유흥·오락적 성격에서 벗어나 의식있는 대동제문화조성의 새로운 시도로 한번쯤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반응. 한편 우천으로 하루 연기된 동아리연합회(회장=이정형·경영4) 주최 '동아리 해방제'가 오후 8시부터 녹야원에서 있었다.

3백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지켜본 해방제는 그러나, 시간관계로 6개 동아리의 공연이 빠지고 '불휘'의 '북춤과 장고춤', '우리 옷 선보이기'등이 준비미흡으로 실시되지 못했으며 정열응원단의 치어공연도중 무대가 내려 앉는등 행사진행의 유연함이 아쉬웠던 자리였다는 중론.

○…민중승리의 날(15일)은 총학생회 주최로 오후 6시부터 대동제의 마지막 행사인 백상연이 문무관에서 열렸다.

민중문화운동연합산하 몸짓패 '해방몸짓'과 포항지역 노동자 노래패 '소리불꽃'의 식전공연후 유명연예인·가수들의 공연에서는 타지역 극렬팬(?)들의 안좋은 모습이 눈에 띄어 기성 공연무대를 방불케 하는 백상연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이밖에 각 학과별로 실시하는 학술제와 상경대주관 '전교조 물품판매' 및 '우리 밀로 만든 빵판매'등의 기획행사는 주점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비교해 썰렁했던 분위기, 또 대동제기간중 질서유지를 위해 총학생회에서 꾸려낸 백상규찰대는 사전 활동홍보 미비와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주점거리에서 잦은 마찰을 빚는 부작용을 연출.

이번 대동제는 우천등의 악재가 겹쳤다지만 큰 기획행사들이 대부분 예년과 비교해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학생들의 인식도 '먹고 즐기는 대동제'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 행사 각 주체들의 올바른 대동제 문화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

<취재부>

불교 문화연구원 세미나
뇌사인정 불교적 조명

삶과 죽음의 갈림길인 뇌사인정 논란과 관련 본교 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지난 21일 '뇌사인정, 그 불교적 조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호진(경주캠퍼스·불교학)교수는 서두에서 "초기불교의 사망관을 보면 죽음의 의미를 심장사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연기설에 입각해 뇌사또한 배척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선영(교육학)교수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해 "죽은 자를 살리자는 참뜻은 이해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중심의 집착에서 유래한 편의성 또는 실용성이라는 점에서 부적합하다"며 뇌사자의 심장이식수술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의 주된 기조는 참석자들이 발표한 불교의 윤리에 비추어 볼때 죽음의 시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사체에 대한 취급문제는 생명을 살린다는 조건만으로 장기이식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됐다.

학과소식

〈서울캠퍼스〉

경제학과

친목도모를 위해 동국관 옆 잔디밭에서 '경제인의 밤'을 오늘(26일)가진다.

회계학과

오는 29일 오후1시 동국관 앞에서 친선도모를 위한 '회계인 한마당' 자리가 마련되고, 대운동장에서 연합체육대회를 갖는다.

정보관리학과

오는 28일 국민대에서 열리는 경인지구 경영정보 연합회 체육대회에 참가한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소식지 '목멱골'의 원고를 모집한다.

임학과

과총동창회 총회가 지난22일 동국관(L301)에서 1백2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임회장에 오정수(임학)교수를 선출하고 축하연을 가졌다

① 사랑과 수영의 공통점 - 직접 빠져보기 전에는 결코 배울 수 없다
② 입학식날과 졸업식날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나는 사랑에 성공한 걸까? 실패한 걸까?
③ 몇번을 수강해도 A 학점이 안 나오는 과목 - 사랑
④ 남자에겐 단지 여자의 오늘이 중요하다 여자는 남자의 내일을 곰곰히 생각한다
⑤ 높이 날면 먼 곳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다 낮게 날면 내곁에서 사랑을 만난다
⑥ 남자는 오래된 골동품과 같아서 너무 말끔하면 오히려 의심스럽고, 여자는 보석과 같아서 흠이 있으면 그 값어치가 크게 떨어진다
⑦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백설공주 이야기속의 거울이 되자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예요"
⑧ 조금 당황하고, 무지무지 신나고 ! 사랑은 문득 휴강처럼 찾아온다
⑨ A 플러스 아니면 학사경고뿐 - 사랑의 성적표에 B 학점이란 없다
⑩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여자가 진짜 멋있는 여자 - 그러나 이성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⑪ 사랑의 아픔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시간, 그리고 하이트 맥주 한잔!
⑫ 가장 아름답고 축복받을만한 실패는 젊은 날 찾아 오는 사랑의 실패
⑬ 강의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배울 수 없다 - 사랑
⑭ 사랑이라는 질병의 3가지 증상 — F 학점을 받아도 그냥 웃음이 나온다 몸무게와 잠이 준다 아무리 앓아도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
⑮ 여자가 70년대판 참새 시리즈를 이야기했다 남자가 크게 웃었다 지금 둘은 사랑중이다
⑯ 남자는 여자가 하기 나름이다 여자는 남자가 만들기 나름이다
⑰ 지금까지 두번 이상 사랑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한번도 제대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
⑱ 사랑이란 잘 익은 술과도 같은 것 - 처음에는 씁쓸하지만, 달콤하게 느껴지다가 취하기 시작한다
⑲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잊는 것을 까맣게 잊는다고 말한다 세월이 흘러 자신도 모르게 잊는 것을 하얗게 잊는다고 말한다
⑳ 맥주는 아름다운 여자의 눈물을 닮았다 남자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리게 만든다
㉑ 사랑에 과거완료형이란 없다 오직 현재진행형만이 존재할 뿐이다
㉒ 사랑한다고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 말것 사랑하고, 사랑하고, 다시 한번 사랑할것
㉓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가 제목을 그냥 '앤다이아~'로만 기억하는 그녀 - 그래도 나는 그녀가 좋다
㉔ 남자는 헤어진 여자를 위해 운다 여자는 깨어진 사랑이 아쉬워 눈물을 흘린다
㉕ 대학을 재수하면 졸업이 늦어진다 사랑을 재수하면 인생이 늦어진다
㉖ 사랑의 맞춤법은 ? 로 시작해서 !로 이어지고 로 끝난다
㉗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유치한 음담패설도 지적인 개그로 들리는 법이다
㉘ 사랑하느냐와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통통해서 좋다와 뚱뚱해서 싫다의 차이
㉙ 데이트 전날의 기분은 소풍가기 전날과 흡사하다 막상 당일보다 준비할 때가 더 즐겁다
㉚ 미팅의 변증법 혹시? 역시! 그래도 다음에는
㉛ 사랑이라는 꽃의 뿌리는 신뢰의 흙으로 잘 덮어둘것 햇볕에 드러나면 곧 말라 죽어 버린다
㉜ 가장 돈 안드는 다이어트 방법은 친구의 애인을 사랑하는 것
㉝ 아무리 얼렬한 사랑에 빠져 있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빈자리는 언제나 남아 있다
㉞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 사랑에는해당되지 않는다
㉟ - 와 - 가 만나면 설레이는 + , - 와 - 가 사랑하면 가슴뛰는 x , - 와 - 가 헤어지면 쓸쓸한 ÷
㊱ 차가워 질수록 이기는 게임 - 사랑 차가워 질수록 맛있는 술 - 하이트 맥주
㊲ 미팅 많이 한다고 애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게 아닌 것처럼
㊳ 사랑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때가 더욱 어려운 법
㊴ 젊은 날의 공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㊵ 연애는 007 영화 같은 것 - 언제나 도망자와 추적자가 등장한다
㊶ 사랑은 현명한 사람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을 더욱 어리석게 만든다
㊷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덕수궁 돌담길을 걷거나, 애인에게 구두를 사주면 헤어지게 된다 미신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시험한 죄 때문에
㊸ 사랑이 깨어지면, 우정이 깊어진다
㊹ 애인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㊺ 여자는 남자를 잊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 남자는 여자를 잊기 위해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
㊻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숙환, 젊었을 때 가장 위험한 질병은 사랑
㊼ 사랑이란 전쟁과 같아서 언제나 이기는 사람의 것
㊽ 애인과 한번도 싸우지 않았다 - 행복 싸울 애인이 한번도 없었다 - 불행
㊾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랑이란 없다. 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랑이 있을 뿐이다
㊿ 다섯번 전화하고, 세번 편지쓰고, 일곱번 선물하는 것보다 한번 만나는 것이 진짜 사랑
51 30분 늦은 것은 용서할수 없어도, 3시간 늦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연인의 마음
52 사랑이란 바닷물 같은것 -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 목마른 법이다
53 복학생 - 인생에는 좋은 선배, 사랑에 있어서는 위험한 라이벌
54 거품이 없는 맥주는 맥주가 아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55 축제의 마지막 날, 오전 10시, 내방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실때 -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
56 성공한 사랑에서는 아무것도 배울수 없다 실패한 사랑에서만 사랑을 배울수 있다
57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작아지는 것 - 사랑
58 남자가 말하는 '사랑해'는 프롤로그, 여자의 '사랑해'는 에필로그
59 사랑하기에 헤어졌어요 - 위선자
60 사랑이야기에는 해가가 프로, 그러나 사랑을 하는데는 해가도 아마츄어

"해가는 못말려!"

© 1993 King Features Syndicate, Inc.

크라운 60년에 드리는
해가의 60가지 사랑이야기 —
순수한 젊음, 순수한 사랑
젊은날의 아름다운 이야기속에
크라운 맥주가 있습니다.

지하 150미터의 100% 천연수로 만든 —
하이트 맥주

60 1933-1993

단결위한 목멱대동제 개막

과소비 풍조 지향위해 주점 규모 대폭 축소

93목멱대동마당이 '내사는 동악이 제일로 좋아'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개막식및 통일노래한마당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교내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대동제의 의의에 대해 최순호(국교4)총학생회장은 "우리들의 삶속의 즐거움, 동악에서의 작은 미담을 모아내는 장이며, 건강한 대학문화, 생동하는 대학의 작은 출발점으로 삼는 계기가 돼야하고 현 동악에서의 부패구조 혁신의 여러 결의를 모아내는 출발"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주점일색의 대동제를 탈피하기 위해 주점의 수를 줄여 명진관 주변과 동국관 주변으로 한정시켰다.

총학생회: 지난 24일 만해광장에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학생회장의 개막선포로 대동제시작을 알리는 개막제를 제6회동악통일노래한마당과 함께 실시했다.

이번 통일노래한마당에서는 야간강좌 영문과 노래패 터울림의 창작곡 '통일그날'이 최우수상인 통일상을 차지했다.

체육부는 오늘(26일) 만해광장에서 줄다리기, 씨름, 떡따먹기, 발야구, 움직이는 통나무, 너죽고 나살기등 체육·기획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마지막날인 27일에는 폐막식행사를 대동놀이, 신행원씨 공연, 아리랑 축하공연등으로 마무리하고 불교대에서 제작한 연등을 들고 한총련 출범식장인 고려대까지 행진한다.

불교대: 선학과는 오늘(26일) 본관앞에서 일일찻집을 마련하고 이와함께 시화전을 개최한다.

문과대: 물물교환장터를 마련했다.

이장터는 옷, 책, 작은 전자제품, 악세사리등 자신이 잘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필요한 사람이 대동제 기간중에 저가격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과소비풍조와 일회적 소비문화를 지양하고 건전한 대학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금전액을 동국중흥기금으로 환원한다.

이과대: 25일부터 26일까지 과학관 앞에서 '알림에 거리'를 실시하여 단대내의 전공학회, 사회과학소모임, 노래패, 풍물패등의 소모임을 소개한다.

또한 사회과학소모임은 광주민중항쟁과 전대협6년의 역사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한다.

그밖에 통계학과는 노래와 풍물을 함께 곁들인 움직이는 노래방을 선보이고 물리학과는 날으는 달걀 대회를 실시한다.

사과대:반미의식고취와 학자투를 내용으로 한 동국관 앞 거리 꾸미기, 장기수 후원을 위한 주점 마련, 폐휴지와 재생노트 교환등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그밖에 전통차 판매, 사과대 노래패 거리공연과 사과대 5월 자료집을 발간했다.

한편, 정치외교학과는 예쁜 엽서전, 백일장, 오목대회등을 실시한다.

농과대: 농업생물학과 한국자생식물채집 연구모임인 '금강초롱회'는 이번 대동제 기간에 분재전시판매를 혜화관 2층에서 갖는다.

임학과 '나모회'는 사진전을 열며 농업경제학과는 '어울림한마당'을 오늘 (26일) 갖는다.

공과대: 화학공학과는 작년에 이어 제2회 Process전을 원흥관에서 가지며 전자공학과는 전자전시회를 계산관에서 연다.

또한 컴퓨터공학과 소모임 Caps는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동국관 로비에서 열며 식품공학과는 제빵전시회및 판매를 다향관앞에서 갖는다.

사범대: '93사범대 통일축전 "열전! 달리는 한총련"을 지난 25일 학림관주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 노래부르기, 통일 다트던지기, 우유마시고 달리기, 단일기 만들기등으로 약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조국통일의 굳은맹세 한총련 출범식 참가에 대한 결의로 마무리지었다.

국어교육과는 글패인 '변성기'와 '새벽'이 주관하는 '글사랑의 밤'이 오늘(26일) 소강당에서 열린다.

1부는 시와 생활글 낭송, 2부는 복학생선배와 새내기의 편지글 낭송, 문학퀴즈 3부는 93학번의 요즘 생활을 담은 시극을 공연한다.

수학교육과는 백일장을 오늘(26일) 룸비니 동산에서 수학교육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예술대:25·26 양일간 '유현목 감독 영화제'를 연영과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이 영화제는 유현목(연극영화학)교수의 작품인 '오발탄' '막차로 온 손님들' '김약국집의 딸들' '사람의 아들'을 상연했다.

한편, 미술학과는 혜화관2층 로비에서 미술학과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 미술전시회를 가진다.

야간강좌: 오늘(26일) 혜화관앞에서 한밤의 노래자랑, 거리영화제를 개최하며 시상이 끝난후에는 전대협6년의 역사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한다.

동아리연합회: 총62개 동아리중 22개 동아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크게 공연분야와 전시회로 나눌수 있다.

공연을 준비하는 동아리는 손짓사랑회, 탈, 아리랑, 극예술연구회등이며 뚝심, 만화얼, 동그라미, 동국문학회등에서는 전시회를 갖는다.

그 밖에 아마추어 야구부는 건국대와 친선게임을 가지며 구통도가에서는 사주카운셀링을 여는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또한 동국문학회가 주축이된 동국문학패연합(건)에서는 '통일문예창작한마당' 행사를 26일 오전10시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학생복지위원회: 대동제기간동안 다향관앞에서 우리옷 전시·판매를 진행한다.

◇불교도 주간인 지난 17일 학내 곳곳에 설치된 연등 점등식을 가지고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했다.

불교도 주간 행사 마무리

5월 열사 천도제등 성황

불교도주간이었던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불교대 학생회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불교도주간선포의 날이었던 17일은 불상앞에서 선포식과 함께 참석한 사람 40여명이 직접 제작한 연등을 들고 팔정도를 도는 행사를 가졌으며,농활대원 환영식도 있었다.

이날 오후 5시에 정각원에서 있었던 점등식에 총장, 이사장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열사추모의 날이었던 18일은 오후 2시 불상앞에서 '5월열사 천도제 및 5·18진상규명규탄대회'가 있었다.

불교대 학생회와 석림회(회장=법상스님·선학3, 총학생회(회장=최순호·국교4)가 공동주최한 이행사는 김영삼정권의 5·13담화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밝히고, 5·18의 역사적 사실규명과 그에 대한 동악인의 자세를 표명한 규탄대회에 이어 축원, 제사의례를 중심으로 한 열사천도제로 진행됐다.

불교문화의 날인 19일은 심우장앞에서 실크로드 시사회를 가졌다.

포교의 날이었던 20일은 불교대 정·부학생회장과 보살사상연구회장이 △불교관계제반악법 △종단개혁문제 △한국불교근·현대사를 강연한 교양학교를 열었고, 녹차 등의 전통차 보시, 불자수첩과 '불법-영원한 복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포교책자를 발행하여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였다.

동국대 불교도의 날이었던 21일에는 만해광장에서 '스님·재가학생한마당'을 개최하려 했으나 우천관계로 무산됐다. 불교도주간 마지막 날에는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 제등 행렬이 있었다.

본교에서는 풍물패가 공연을 하고 불교대학생들이 백상모형을 끌면서 행렬에 참가했다. 행렬이 끝난후 훼불사건 규탄과 종단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편, 불교대학생회는 불교방송국에서 주최한 '자비의 전화'에 5만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선학과에서는 고아원방문과 불구용품판매를 개시했다. 또, 불교사회복지시설을 소재로 한 사진전시회를 불교도주간동안 다향관 앞에서 가졌다.

포교를 목적으로 제작·전시된 봉축카드는 내일(27일)있을 한총련 출범식때 보시할 예정이다.

한총련 제1기 출범 선언

오는 27일 고려대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재용, 이하 한총련) 출범식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고려대학교일원에서 열린다.

정세변화에 맞춰 새로운 학생운동의 기조를 만들고 학생들의 올바른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갈 이번 한총련 출범식은 3일에 걸쳐 다양한 행사로 개최된다.

출범식의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일: 오후2시-전국 각지역에서 모인 구국선봉대 집결식, 4시-전국 백만학도집결, 7시-전야제 행사로 전대협 6년 역사총화, 선배들의 한총련 출범 축하, 한총련의 상을 제시하는 문화공연, 자원봉사단과 구국선봉대 결의대회, 의장단인사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밤11시-분임토의 시간으로 지역별 결의의 시간을 갖고 다음날 일정준비후 취침.

△28일:오전8시-식사와 지역별 모임이 있고 9시-상설공연마당과 부문계열별 모임이 있다.

오후1시-세계평화 대토론회가 열리며 5시-새내기 예비역 한마당이 열린다.

오후6시-제1기 학자위 출범식이 7시-제4기 조통위 출범식이 개최된다.

9시-본대회 순으로 제1기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다.

한총련 1년사업 공유, 한양대 총학생회장 김재용군의 1대 의장 옹립과 문화공연이 이어진다.

△29일:오전10시-광주학살진짜주범 미국의 공개사과와 6·12 조국반도의 평화실현과 자매결연예비회담 성사를 위한 한총련 백만학도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오후1시-광주학살 진짜 주범 미국의 공개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마친후 연세대학교 까지 평화행진을 벌인다.

이밖에 한총련 측은 준비기간중 '백만학우 의견개진엽서보내기운동'과 '백만학우 자기 목소리 내기 버튼달기운동'을 전개해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출범식 장소인 고려대학교에서는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출범식 예상참가인원인 15만명이 모일경우 장소의 협소함을 우려 하였으나 경희대측이 숙소제공을 제안하여 출범식 준비는 한층더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야구부

천마기대회 출전

본교 야구부는 오늘(26일)부터 31일까지 부산구덕야구장에서 열리는 제2회 천마기 전국대학 야구대회에 출전해 오늘(26일)단국대와 첫경기를 갖는다.

부산 국제신문사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90개 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갖는다.

졸업앨범 사진촬영 공고

오는 7일까지 과별 진행

제5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정대용··야간경제4)는 지난 19일 선명스튜디오와 94년 졸업앨범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일정을 공고했다.

지난 21일 부터 법학과를 시작으로 국문, 영문, 독문등 4개과가 21일 촬영을 마쳤으며 24일 일문, 행정, 물리, 화학과 25일 행정, 사회, 정외과 오늘(26일)은 철학과가 촬영에 들어간다.

또한 나머지과들은 오는 27일부터 6월7일까지 촬영한다.

△27일=경제(야), 무역(야) △31일=건축, 화공, 경영(야), 회계(야), 경제, 임학, 농생물 △6월1일=교육, 역교, 농학, 농경제 △2일=지교, 국교, 경영, 무역, 식공, 전기 △3일=수교, 가교, 체교, 회계, 정보관리, 선학, 인철, 불교, 토목, 산공 △4일=사학, 국민윤리, 통계, 미술 △7일=컴공, 전자, 연영

전영일 교수 우수논문상

'건축의 과학주의…'로 수상

건축공학과 전영일 교수는 지난 11일 반도 아카데미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시상식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과학, 공학분야에서 분야별 우수논문을 선정 시상하는 이번행사에서 '건축의 과학주의와 설계방법론 비판'이란 제목으로 수상하게 된 전영일 교수는 논문에 대해 "합리주의 관점에서 시작된 과학주의가 가지는 맹점과 그것이 건축에 도입됨으로써 드러나는 맹점들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 발표한 것"이라고 말하며 "기초분야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상황에서 건축에 대한 기초를 다룬 논문으로 상을 받게 돼 더욱 기쁘다"고 간단한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학교사랑

○··싸늘한 동악의 현실에 그래도 우리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 있어.

알아본즉, 지난해부터 폐휴지수거로 교내 환경문제해결에 일익을 담당해 개교 87주년 기념공로패를 받은 경영대학원 교학부 직원 김명숙씨가 상금으로 탄 2십만원을 개교 90주년 기념사업회에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 동악에 학원을 개인의 잇권 근거지로 삼은 이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이같은 따뜻한 학교사랑이야기를 전해들은 회전무대자 "오늘에야 동악에 봄이 왔구나"라고 한마디.

무장해제

○··지난 18일 아침 졸지에 무장해제(?)당한 검도부원들의 죽도찾기에 학생회관이 떠들썩해 오가는 학우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알아본즉 간밤에 누군가가 문을 뜯어 내고 들어가 죽도를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고.

근1시간만에 화장실에서 잘꾸며진채 놓여있는 죽도를 찾고 나서도 검도부원들은 이 어이없는 누군가의 행동에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최근 학생회관에 이런 도둑아닌 도둑의 소행외에도 도난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한 검도부원 한마디 "찾은 죽도들고 학생회관을 도둑으로부터 지켜나가겠다"며 당찬 결의.

살벌한 축제

○··대동제 기간 중 온방골에는 무시무시한 마스크맨들이 등장, 축제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었다는데.

올바른 대학축제문화 질서확립을 위해 백상대가 꾸려졌다지만 쇠파이프까지 휴대하며 필요이상의 위협감을 조성, 축제질서를 바로 잡자는 건지, 축제분위기를 진압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이에 회전무대자 한마디 "학우여러분, 그렇다면 다 함께 백상대가 필요없는 축제문화를 만들어보는게 어떨런지요."

속빈 강정

○··지난 13일 김대통령이 발표한 5·18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담화'는 속빈강정처럼 핵심이 없었다는 평가.

오늘의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빠지고 기념일 제정, 망월동 묘지 성역화, 상무대의 무상양여등 광주문제 외상의 치유에만 머물러.

김대통령의 광주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기대했다는 한 시민은 "노대통령에 이어 다시한번 국민들을 '물'먹인 처사"라고 한마디.

회전무대

김영삼정권의 겉도는 5·18진상규명… 국민 물먹인 처사

공 고

'93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 간: '93.5.31(월)~6.2(수) 3일간
2.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소속대학 교학과, 학과
3. 대 상: '93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전원
4. 유의사항
   가. 교과목의 학수,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다. 제1학기 개인별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학과에서 교부받기 바람.
   라. 교학과 및 학과에 배부된 종합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1993.5.21

교 무 처 장

예비군 기본 교육 소집 공고

향군법 제6조에 의거 93년도 기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본교 예비군 전원(교직원 및 재학생, 대학원생)
2. 교육대상 제외자
   가.93년 1월1일 이후 전역자
   나.93년1월1일 이후 동원훈련을 필한 자
   다.85년 12월31일 이전(전역8년차 이상)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 간부에 해당되는 자
   라.미필 보충역
   마.93년 동원훈련에 지정된 학교 및 의료원 직원
3. 학과별 교육일정

조별	학 과	1일차		2일차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일자	교육장소
1	교직원, 대학원	6.29	1대대정무관	6.30	1대대동천사격장
2	경영, 무역, 불교	7.1	정 무 관	7.2	동천사격장
3	경제, 생화학, 회계, 철	7.1	동천사격장	7.2	정 무 관
4	행정, 생물, 법, 미술	7.5	정무관	7.6	동천사격장
5	관광, 법(야), 정보산업, 영문, 산업안전, 일문	7.5	동천사격장	7.6	정 무 관
6	조경, 경영(야) 전산, 국문, 중문	7.7	정무관	7.8	동천사격장
7	한의, 화학, 한문, 국사, 의대, 고미사, 수교, 사복	7.7	동천사격장	7.8	정 무 관

※각 개 점호 함으로 교육일정 및 장소변동 불가

4. 교육시간:08:00~17:00(지연 도착자 불참으로 처리됨)
5. 복장:예비군복(전투복,전투모,전투화 미착용자는 귀가시킴:교육참석 불가)
6. 휴대품:증명서(학생증,주민등록증,기타신분증,필기구)미소지자는 귀가 시킴(교육참석 불가)
7. 유의사항
   가.훈련 기간중 국가고시,입원,천재지변(불의사고)발생시 즉시 관계서류 제출
   나.기간내에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시고 수령증을 자필로 서명 날인하시기 바라며 통지서 수령시 유인물을 꼭 받아가셔서 교육일정및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다.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지 않은 학생은 93.6.23일까지 예비군 연대에서 필히 수령할 것.
8. 소집 점검 훈련-86년 12월31일 이전(전역7년차 이상)에 전역한 일반하사 병, 보충역에 해당하는 예비군은 93.6.28 09:00 소강당으로 집합 할 것

동국대학교(경주)예비군 연대장

공 고

93학년도 본 대학원 연구논집 제23집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논문집명칭: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3집
2. 원고모집 대상: 가.석·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나.본교 대학원 출신의 본교강사
   다.본교의 조교
3. 원고매수: 워드작성 A4용지 20매 내외 분량 (도표포함)
4. 원고제출부수:가. 인쇄용 원부 1부
   나. 심사용부본 3부
5. 원고제출마감일: '93.8.31(화)까지
6. 발 행 일: '94.1.31
7. 게재여부통보: '93.10월중 개별통보
8. 제출처: 대학원 교학부

대 학 원 장

謹 弔

에베레스트 등정의 장도에 나서 8천8백 48m 정상등정의 쾌거를 이룬 후 애석하게도 빙벽속에서 유명을 달리한 故 남원우, 故안진섭 대원의 명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두 대원은 갔지만 남기신 그 업적과 큰 뜻은 모든 산악인들에게 길이 간직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분향소:서울캠퍼스 산악부실(도서관 지하)
경주캠퍼스 산악부실(학생회관 3층)

동국대학교산악부
동 국 산 악 부

손수 번역·편집한 교재로 강의

쉼없는 연구 … 포유동물학분야의 대가

삶의 뒤안길 ④

원 병 휘 교수편

<약 력>
1959년 3월~1982년 2월까지 본교 농생물학과 교수로 재직
농림대학장, 1976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농생물학과의 교수로 봉직하면서 정년을 마치시기까지 근무하셨던 퇴임교수로는 원병휘박사와 공태훈교수 두 분이 계셨고, 먼저 1982년 원교수께서 대학원교수로 만 70세까지 근무하시고 퇴임하셨던 원교수님을 중심으로 기억을 정리해 보려한다.

원교수님은 부친되시는 원홍구박사가 북한의 조류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생존해 계셨으며, 경희대학교 생물학과의 교수로 같은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고 있었던 동생되시는 원병오교수와 함께 분단된 조국의 전형적 아픔을 생각케하는 화제의 가족이기도 하다.

원박사님은 우리나라 표유동물학 분야의 대가로서, 특히, 설치류(쥐종류)에 대한 분류, 생태학적 연구를 1930년대부터 중국만주일대와 한반도에서 일본의 세계적 표유동물학자인 구조다박사와 함께 1945년까지 수행해 왔으며, 1982년 본교를 떠나실 때까지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시어, 한국동식물도감(표유동물편)을 펴내시고 이 분야의 귀중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본인은 현재 농생물학과의 전신인 생물학과에 1956년 입학하여 그 분의 가르침으로 인연을 맺은 후 퇴임하시기까지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스승으로 모시며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이제 그 분의 옛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많은 날들을 여기 동악에서 지냈고, 또 얼마남지 않은 날들을 더욱 뜻있게 보내야 하겠구나 생각하며 옷깃을 여미게 된다.

원박사님은 철저한 교육자적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주어진 일들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가시는 것을 보아왔다. 1950년대에 참고할 책 하나, 교과서 하나, 제대로 없었던 그 때 일본에서 새로 어렵게 구입한 책들을 밤낮 연구실에서 손수 번역, 편집하시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프린트물로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모습들이 기억되며,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마련되는 트럭을 타고 한 번도 빼지 않고 야외채집을 실시했던 철저함이 생각난다. 그 당시 야외채집은 경기도 광능에 있는 임업연구원에 많이 갔었는데, 한번은 우리 학생들과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학생들이 같은 채집목적으로 왔다가 싸움이 벌어져 우리를 인솔하셨던 맏형 원교수와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인솔했던 동생 원병오교수가 서로 입장이 난처했던 경우도 있었다. 사실 토요일마다 야외실습으로 기억되는 많은 추억거리는 훗날 모든 졸업생들의 아름다운 옛이야기로 옛 스승을 모시는 자리에서마다 화제가 되곤 한다.

1960년후반에 비무장지대(DMZ) 생물조사가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쥐를 잡아야 하는 우리 팀은 밤에 활동하는 쥐를 채집하기 위해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위험지역을 군인들의 철저한 경호로 기어이 계획된대로 실시하여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원교수님은 말씀이 적으시며 행동이 적극적이셔서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낚시를 퍽이나 좋아하셔서 지금까지 계속하시고 계신다.

기억하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실을 비우는 예는 별로 없으셨으며, 점심도 연구실에서 도시락이나 손수 마련하신 것들로 해결하셨다. 또한 모든 경우 자상한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바로 옮길 때가 대부분이어서 미처 알지못한 경우 곁에 있던 사람도 오해할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마도 이러한 선생님의 연구생활모습들이 본인을 포함하여 우리 과의 교수들 모두 점심때면 도시락으로 함께 모여 즐거운 한 때를 갖게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훌륭하게 교수생활을 끝내시고 정년으로 퇴임하신 후에는 야생동물연구 활동과, 취미로 낚시를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며, 스승의 날 제자들의 모임때마다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즐거워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지금은 3개월째 집에서 요양하시다 며칠전에는 많이 회복되시어 도움을 받으며 집안을 거닐 수 있게 되시어 퍽 기뻤다. 하루 속히 모두 회복하시어 제자들과 함께 예년처럼 늦게까지 기쁜 모임이 주선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 해 풍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교수>

◇ 선배들의 대동제를 봅시다

대학내 상실된 민족정신 부활에 역점둬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80년대 초기의 대학캠퍼스는 말 그대로 동토(凍土)였다. 교정에는 곳곳에 독사눈의 경찰들이 상주하였고, 누군가의 단발마적 외침, 끌려가는 학생… 그 언저리에서 맴도는 다수의 침묵이 무겁기만 했다.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학축제는 어수선했지만 왠지 허전했다. 쌍쌍파티, 불꽃놀이, 가수들의 공연속에서 들떠있는 캠퍼스의 한쪽에서는 냉소적인 술자리가 벌어지게 마련이었고, 가끔은 건장한 체격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규찰대(정확한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에 의해 술판이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그런대로 조용하게 축제는 막이 내렸다.

3학년으로 진급하던 84년 봄에 나는 후배들에게 떠밀려 학과의 학회장(현재의 과학생회장)이 되었다. 그해에는 시국관련 제적생들의 복교 조치를 시작으로 소위 개량적인 학원자율화의 조치가 취해지던 때였다. 5공 군사정권의 폭압정치가 벽에 부딪히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대학에서는 민주화의 열기가 일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자치기구였던 학도호국단은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해 유월초 민주화의 실천과 학도호국단 폐지, 총학생회 부활을 천명한 후보가 제10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나에게 집행부의 일원이 되어달라는 권유가 들어왔다. 많은 고민을 거쳐 나는 마지막 학도호국단의 총무부장을 맡게 되었다.

여름방학 기간동안 집행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매년 가을에 개최되던 백상체전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당시 역사의 흐름을 반영하는 내용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성과 실천의 축제로서 치루기로 하였다. 그때 결정된 백상민속체전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대한 격랑의 서곡이었다. 먼저 민속체전의 성격을 민족의 전통과 민중의 정서가 녹아들어 있는 전래민속놀이의 재현을 통해서 그 당시 대학에서 상실된 민족정신을 되찾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는 개막식을 차전놀이로 시작하고 폐막식을 영산줄다리기와 횃불제로 치루기로 하였다. 또한 민속체전의 내용을 보완하고 학생대중의 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3일간에 걸쳐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반체제 인사로서 지목이 되었던 고은, 백기완, 여익구 세분의 강연회를 많은 학생들의 참여속에서 체육관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대동제는 그시대 '희노애락'의 응집체였다.

백상민속체전의 개막! 두대의 차전을 앞세우고 백여개의 오색깃발이 물결치면서 운동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무언가에 위축되었던 학생들이 삼삼오오 운동장으로 몰려들었고 흡사 시골 국민학교 운동회를 연상시키는 바구니 터뜨리기, 진치기, 스크럼 부수기등에는 수백명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다. 드디어 두마리의 거대한 용과 같은 영산줄이 길놀이를 마치고 운동장으로 들어왔다.

한달여에 걸쳐 짚단을 꼬아서 만든 영산줄은 천여명 이상이 함께 들어야만 움직인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산줄다리기의 실현을 위해서 기능보유자인 박모옹과 그분의 제자들이 약 열흘간에 걸쳐 줄의 제작과 놀이의 진행을 지도하였다. 대운동장에 마주선 거대한 암수 두마리 용의 꿈틀거림에 스탠드에 앉아있던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들어 줄놀이에 동참하였다. 본부석에 앉아있던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운동장으로 나와 줄놀이에 참여하면서 그 열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그야말로 대동제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때였다. 그해 가을 영산줄다리기에서 모아진 열기로 우리는 그 다음해 봄에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생회를 부활시켰다.

김 윤 길
<노동조합 사무국장 국어국문학과 79학번>

생활문화운동 활성화 아쉬워
재활용차원서 분리수거 생활화해야

오후가 되면 본교 커피 자판기 옆 쓰레기통엔 종이컵이 수북히 쌓인다. 학우들은 버려지는 종이컵을 아까와 하면서도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학생회관 로비까진 선뜻 가지 않는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컵을 넣은 학우들도 로비 구석에 가지런히 쌓인 종이컵에 한번쯤 의심의 눈길을 보낸 적이 있을거다.

한편 교정 곳곳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도 과연 저속에 들어있는 폐건전지를 수거해 갈까 의심의 눈길을 보낸 학우들도 있을거다.

올 한해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폐건전지 수거'와 '쓰레기 분리수거'가 여러가지 이유로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복위와 학교의 협의아래 환경보호단체 회사중 하나인 'M&R커뮤니케이션'이 본교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수거해 가지 않는 등 전혀 후속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여러곳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학복위와 학교측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자꾸만 조정되는 예산으로 아직 예산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관한 예산통보를 받지 못해 확실히 언제 설치하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조만간 예산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분리수거함의 모델이나 설치위치 등을 준비중이다."라고 학교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학복위 생활문화부장 신상순(인철4)양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학복위에서 설치할 수도 있으나 이미 그것은 학교측에서 하기로 된 것이며 분리수거함 설치할 돈으로 학우들의 다른 복지 부분에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학복위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미루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영은 "지금의 생활문화운동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거기서 모인 쓰레기를 모아 자원재생공사나 관련업체에 보내 현금 또는 재생휴지로 받아 학생 복지에 힘써 생활문화운동을 활성화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폐건전지 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학우들의 관심속에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심에 비해 충분치 못한 분리 수거함 때문에 많은 학우들은 안타까움 속에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 하루 빨리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환경오염방지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榮>

문화단신

공연안내

◇잠적/토템…극단 '한강'에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접근한 창작극 "잠적"과 "토템"을 하나로 묶어서 공연한다.

이 두작품 모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5월27일부터 6월13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혜화동 예술극장"한마당". 극단 한강 831-6031

◇남사당의 하늘…우리나라 유일의 유랑예인 집단인 남사당의 첫 여성 꼭두쇠인 바우덕이의 일생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슬픔, 고통과 희망, 갈등과 절망등 삶의 애환을 차분하게 그린 윤대성작의 '남사당의 하늘'을 극단 미추가 공연한다. 6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 오후 4시, 7시30분, 국립극장 대극장, 743-7828, 745-7828

5월28일부터 6월28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바탕골 소극장(대학로 소재) 745-0745

페이라리

▲ 서양의 철학가 몸젠(W.Mommsen)은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평을 던졌다. "역사는 당신들에게 더이상 자신이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나지않고 오히려 멀리 떨어진 맹목적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사를 대하는 착취계급의 정서적 태도가 그들의 지위가 변할때마다 바뀌어온 사실(史實)을 반증하는 한 대목이다. 즉 몸젠의 말에 담긴 의미는 기득권층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낙관주의적 역사관을 펴다가 전반적인 위기가 시작되면, 혹은 더 이상 전망을 갖지못하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 있게되면 사이비 역사이론과 은폐, 왜곡을 이용한 사이비 낙관주의적 역사이론이 자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 최근에 들어 국민들의 역사에 관한 관심의 형태가 많이 변화했다. 암묵적으로 기득권세력에 의해 은폐·왜곡되어왔던 한국 근현대사의 재조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을 알고싶어하는 호기심에서 뿐만아니라 역사속에 숨겨져 있던 인물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순간 비애를 맛보게 된다. 30년전이든 10년전이든 그 당시의 사건과 은폐된 일들을

어설픈 왜곡

이제야 확인하게 되는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모든 역사의 주체가 돼야 했던 민중은 소외된 채 기득권층의 논리와 조작속에 순간의 역사가 왜곡됐다는 낭패감이 그것이다. ▲ 국민들의 관심만큼이나 요즘 언론매체들은 근·현대사를 '발굴'이라는 이름하에 다투어 신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 장준하선생의 의문사의 배경이나 유신독재 당시 김지하시인의 외로운 싸움등의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들은 다루고 있다. 또한 아주 가까운 10년전 대도 조세형 사건을 다루면서 그 당시 기득권세력의 횡포와 뿌리를 서슴없이 캐내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신나는 진실캐기의 결말에 가서는 모두가 풀이 죽고 만다. 새롭게 접하는 근거들 속에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어느 주제하나 기득권계보에 대한 심판을 주저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역사적 정황에 비추어-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보도에도 기득권 세력의 반론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이런 실망은 아직 문민시대의 역사관을 의심케 만듦과 동시에 기득권세력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을 절감하게 하는 일이다.

<水>

최 경 인
〈23〉

모든 코코스는 미도파가 직영합니다

• 동국대학교 개교87주년을 축하합니다.

COCO'S 미도파가 직영하는 CALIFORNIA RESTAURANT

색다른 맛 저렴한 가격대 놀라운 경험!
비싸다고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가격, 실속있는 음식-코코스

"COCO'S 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곳 COCO'S
이제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최고급 레스토랑의 맛과 서비스를 부담없는
저렴한 가격대로 만나실수 있습니다.
1년내내 휴일이 없는 COCO'S
정성과 자부심으로 만들어 내는 150여가지
ITEM의 다양한 메뉴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사1호점 강남구 신사동 622 전화:548-6904/5
대치2호점 강남구 대치동 1005 전화:561-1112/3
석촌3호점 송파구 석촌동 158-4 전화:419-2873/4
성내4호점 강동구 성내동 448-21 전화:487-2473/4
방배5호점 서초구 서초동 1490-33 전화:522-2527
미아6호점 도봉구 미아동 460-110 전화:989-5492/3
서초7호점 서초구 서초동 1607-5 전화:587-2178/9
양재9호점 서초구 양재동 2-3 전화:579-7748/9
이수10호점 서초구 방배동 791-1 전화:536-9677/8
수원11호점 수원시 인계동 1121-5 전화:(0331)33-4731/2
군자12호점 성동구 군자동 270 전화:498-0728/9
주안13호점 인천 남구 주안동 1585 전화:(032)431-4408/9
상계14호점 노원구 상계동 713 전화:952-0214
역삼15호점 강남구 역삼동 738-26 전화:565-6094/5
신촌16호점 서대문구 창천동 31번지 전화:365-3905
동교17호점 마포구 동교동 166-13 전화:335-1874~5